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방재저널

— 2026
5

권두언

박은식 산림청장

특 집

산사태

오피니언

디지털 기반 재난 피해복구 의사결정지원
플랫폼 연구개발과 방재 분야 적용 방향



한국방재협회

KDPA

KOREA DISASTER PREVENTION ASSOCIATION



한국방재협회 QR코드 소개



한국방재협회 홈페이지
교육, 재난안전신기술, 협회 소식 등 안내

협회 주요업무

교육

교육과정, 일정, 수강신청,
교육게시판 안내



회원광장

자격&가입안내, 회원현황,
회원관리규정

신기술

제도소개, 신청·평가 안내,
지정현황 제공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제도소개, 민원업무안내,
등록현황 제공

카톡채널 & 커뮤니티

카카오톡 채널
협회 소식 안내



방재안전직 커뮤니티

방재소식, 정책제안,
자료실 등 정보제공

방재저널 독자 기고 안내

구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방재저널은 국내 유일의 방재관련 종합 전문지로 한국방재협회 회원 및 관련 종사자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방재분야 이슈에 관해 여러분의 칼럼, 정책 소개(제안), 산업과 기술, 제도 개선 등 원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고안내

- 원고규격 : A4, HWP 파일 (양식 별첨), 4페이지 내외
- 주제 및 내용 : [자유주제] 오피니언, 회원광장(칼럼), 스토리(수필) 등
- 제출기한 : '26년 연중 제출, ※ 격월 발간 ('26년 홀수월)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master@kodipa.or.kr (김진호 팀장, 02-3472-8063)
※ 채택되신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투고하신 글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고자는 반드시 성명, 소속,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기재 바랍니다.

구독자 설문조사 안내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간하는 방재저널을 구독하며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나은 방재저널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2026년 방재저널 제작에 적극 반영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방재저널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한 소정의 선물을 발송해 드립니다.



방재저널 설문조사

CONTENTS

2026.05 | Vol. 28 / No.3

제 127호



표지이야기

〈산사태〉를 주제로 제작된 시·생성 이미지입니다.

발행인 이 상 권

발행처 한국방재협회
우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성내동 447-9)

담당자 김진호 팀장

T E L 02. 3472. 8062~3

F A X 02. 3472. 8064

발행일 2026년 05월 25일

인쇄처 (주)가나씨앤피 02. 2272. 1143

편집위원회

위원장 : 류지협 (사)재난안전관리원 회장

부위원장 : 박용중 (주)국동엔지니어링 부사장

정양섭 행정안전부 과장

정우철 (주)삼안 부사장

간사 : 이창희 중원대학교 교수

위원 : 김정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한샘 동국대학교 교수

라정일 Kwansei Gakuin Univ. 교수

민금영 안전과학기술연구원 연구소장

박상식 부천대학교 교수

백유현 (주)유신 부장

송주일 (주)부린 연구소장

여창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이지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충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수

조현선 (주)삼안 상무

하규만 Rabdan Academy 교수

황연규 행정안전부 사무관



04 권두언

“국민과 함께하는 산사태 재난관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은식

07 특집

〈산사태〉

00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01 산림청, 국민안전을 위한 ‘2026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발표

02 산림청, 여름철 산사태 예방 위해 범부처 공동
대응 강화

03 생활권 산사태 위험요소, 주민이 직접 찾는다!

04 경상북도, 2026년 ‘산사태 피해 제로’ 목표...
예방 중심 선제적 대응 총력

05 산사태 대비 주민대피 ‘골든타임’ 사수...
경상남도, 실전형 모의훈련 실시

06 충청남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장마 전 마무리 총력

23 브리핑 & 뉴스

〈정책〉

01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 위해,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02 각종 재난·안전정보, ‘국민안전24’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03 막힌 빗물받이 뚫고, 노후 제방 보강 등
여름철 침수 위험요소 미리 조치한다

04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 개최

05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드론 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 06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 범정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07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

64 <지자체>

- 01 서울시, 전국 최초 지하철도 통제 정보, 내비게이션 실시간 안내... 집중호우 전 안전성 확보
- 02 시민 안전 최우선... 부산시, 여름철 대비 재해우려사업장 현장점검
- 03 인천시,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노후·고위험 시설 784개소 집중안전점검
- 04 대전시, 시민 안전 최우선... 풍수해 대비 현장 점검 실시
- 05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 재난 대응 체계 강화
- 06 경기도, 모바일 메신저 활용 '산불재난 대응' 모의훈련 실시
- 07 경상북도, 해빙기 산사태 예방 총력...현장점검반 가동
- 08 전북자치도, 지난 밤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확대
- 09 충청남도,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총력

84 <회원사>

- 01 한국농어촌공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반시설 관리, '드론'으로!
- 02 한국수자원공사, 기후위기 대응부터 현장 안전까지... 미래혁신기술의 물관리 적용 방향 논의

89 <해외뉴스>

- 01 일본, 2025년 토사재해 발생 건수 공표

91 오피니언

- 01 디지털 기반 재난 피해복구 의사결정지원 플랫폼 연구개발과 방재 분야 적용 방향 | 홍재주

98 회원광장

- 01 한국방재협회 News Room
- 02 특별회원(지자체) 6~7월 주요행사 알림

108 스토리

- 01 불행중 다행 | 윤순섭
- 02 문학치유(1) | 정해옥

119 기술

- 인장형 탄성 넷트와 장력센서 기반 스마트 토석류 방호 재난 경보 기술

“ 이제 재난관리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주민참여형 사방사업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인식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산사태 재난관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

한국방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은식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인 ‘산사태’, 사회재난인 ‘산불’과 ‘사방시설 붕괴’의 재난 관리주관기관입니다.

봄철에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였으며, 산불조심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함께 이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산사태 대응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림재난은 점차 대형화·복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 강우의 증가로 인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피해 역시 산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통합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재난 방지의 중점목표를 기존 ‘산림보호’ 중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까지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산사태 피해 위험이 높은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산사태 재난관리 범위를 기존 산림에서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까지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허가 등에 대해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분야로 분산되어 있던 조직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하고, 대응 인력 역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일원화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전국 760명 수준이었던 산사태 대응 지원인력을 추가 예산 증액 없이 약 9천여 명 규모로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장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토석류 방호벽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참여형 재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사태는 발생 이전의 징후를 사전에 가시적으로 포착하기 어렵고, 일단 발생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사태위험지도, 토석류피해예측지도, 산사태예측정보 등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위험지도는 전국 산지를 10m×10m 격자로 구분하여 지형·토질·임상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뒤 상대적 위험도를 1~5등급으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또한 실시간 강우를 반영한 '강우반영 산사태위험도'를 함께 제공하여 주민대피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석류피해예측지도는 토석류의 이동 범위와 피해영향 범위를 예측하는 지도로, 위험지역 설정과 주민대피 범위 결정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예측정보는 지질·지형 특성과 현재 및 미래 강우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최대 48시간 이후까지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매시간 분석되어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민에게도 공개하여 국민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측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산림수문모델 개발, 산악지역 상세 기상정보 구축, AI 기반 산사태 예측모델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재난관리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주민참여형 사방사업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인식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토석류 방호벽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참여형 재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산사태 재난은 피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산림청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현장 중심의 정책과 과학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산사태

00 |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01 | 산림청, 국민안전을 위한 '2026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발표

02 | 산림청, 여름철 산사태 예방 위해 범부처 공동 대응 강화

03 | 생활권 산사태 위험요소, 주민이 직접 찾는다!

04 | 경상북도, 2026년 '산사태 피해 제로' 목표...
예방 중심 선제적 대응 총력

05 | 산사태 대비 주민대피 '골든타임' 사수...
경상남도, 실전형 모의훈련 실시

06 | 충청남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장마 전 마무리 총력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여름철 우기 및 태풍(폭풍) 전

산과 가까이 있는 주택(건물) 배수시설 점검하기

• 위험요인 발견 시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집중호우 및 태풍(폭풍) 시

기상정보 및 대피장소 확인하기 산 주변에서 야외활동 하지 않기

•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확인방법
- 산사태 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난' 앱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스마트산림재난 (스마트폰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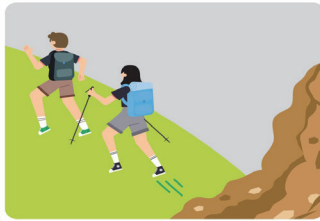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산에서는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기



야영(캠핑) 중에는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계곡에서 떨어진 높은 언덕으로 대피하기



주택(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산과 멀리 있는 가장 높은 층 방으로 대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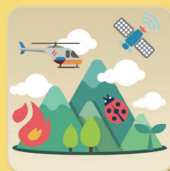
운전 중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 대피 이동 중에는 신호등, 가로등, 고압전선 인근으로 접근을 자제하세요.



산사태국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하세요.



스마트산림재난
산림청

다운로드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 이 종이는 저속가능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산림청, 국민안전을 위한 ‘2026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발표



“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기철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신속히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 5월 14일, ‘인명피해 제로’의 국민안전을 위한 ‘2026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대책은 특히 극한 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주민 대피와 민간 참여형 재난 관리 등 주민대피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4가지 핵심 정책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제적 주민 대피 체계 강화

올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민들이 대피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피 기준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강우량 기반 대피 기준: 누적 강우량(12시간 150mm, 24시간 210mm 이상) 및 토양함수량(80% 도달 시 위험)을 기준으로 한 주민대피 판단기준(안)을 지방정부에 배포했습니다. 또한, 기존 760명이었던 산사태 대응 인력을 9,272명 규모의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대폭 확대하여 연중 운영하고 시·군·구 단위의 산사태 대피 훈련을 실질적인 거주지인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실시합니다.



산림청(박은식 청장) 2026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발표

둘째. 예측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고도화

담당 공무원만 확인하던 고급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여 자발적 대피를 유도합니다. '산사태 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최대 48시간 후의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AI를 활용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1km 격자 단위의 세밀한 기상 정보를 적용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재난 관리 도입

산사태 재난 관리를 정부 주도의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이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고 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방시설 공모제를 시행하며, 마을 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직접 현장 조사를 요청하면,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 후 예방 사업에 우선 반영합니다.

넷째. 예방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기존 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일반 사방댐보다 저사 능력이 4배 높은 산림유역관리사업용 28개소에서 138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설치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사방댐에 대한 정밀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산림 소유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고만으로 즉시 강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기철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람을 받으면 신속히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DPA**

산림청



산사태재난 **총력대응**으로 국민안전을 수호하겠습니다.



예방·대비 선제적 위험 관리 및 예방사업 강화

01 위험 관리

취약지역 확대 및 사전위험성 검토 도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25년 3만 4천 개소 → ‘26년 3만 8천 개소)
- 산림안전건축 산림재난위험성 사전 검토 제도 도입·시행(‘26. 2)

02 예방 강화

예방사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산림유역관리사업 확대
(‘25년 28개소 → ‘26년 138개소)
- 20년 이상 노후 사방댐 및 다목적 사방댐 정밀점검 의무화

예측 고도화 첨단과학 기반 산사태 예측 고도화

03 정보 수집

산악지역 감시기반 확충

- 산악기상관측망
(‘25년까지 511개소 → ‘26년 527개소)
- 산림유량관측망
(‘25년까지 90개소 → ‘26년 150개소)
- 산림수계수치지도
(‘25년까지 경북·충청권 → ‘26년 경기·강원권)

04 예측 강화

AI 기반 예측 모델 고도화

- AI 기반 산사태 예측 모델 고도화
(통계기반, 9개 인자 → AI학습, 13개 인자)
- 산악기상정보 상재화로 예측 정밀화
(5km 격자 단위 산악기상정보 → 1km 격자)

대응·대피 현장작동성 및 주민대피 강화

05 주민 대피

주민대피 현장작동성 강화

- 행동매뉴얼 개선(안) 배포
(주민대피 판단 정량적 기준 제시 등)
- 대피조력 강화
(산사태현장예방단 760명, 5개월 → 산림재난대응단 9,272명, 연중)

06 훈련 강화

주민대피 훈련 강화

- 주민대피 훈련 의무화
(「산사태예방지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시군구 → 읍면동 단위 훈련 실시

조사·복구 촘촘한 피해조사와 신속·견실한 복구

07 피해 조사

피해지 현장조사 강화

- 전문가 인력을 확대
(9개 분야 → 12개 분야, 수문·기상·환경 추가)
- 토양 시료채취(1개소 → 3개소)
- 토석류 시뮬레이션(1개 → 2개 프로그램)

08 신속 복구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 소유자 거소불명 시 동의 갈음
(누리집, 게시판 등 30일 이상 공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구 거부 시 강제 복구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주민참여 국민 참여 기반 산사태 재난관리 강화

09 주민 참여

주민참여 예방사업 공모 확대

- (신규) 사방댐 준설 대상지 찾기
- (확대) 산사태 예방사업 찾기
(기존 사방댐 대상지 + 신규 산사태 우려지역)

10 정보 공유

대국민 정보공유 강화

- ‘스마트 산림재난’ 앱 개선
(산사태 예보 발령 현황만 제공 → 산사태 예측정보(메시지)까지 제공)

산림청, 여름철 산사태 예방 위해 범부처 공동 대응 강화

‘디지털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기반 공동대응 및 실무교육 실시



“ 재난업무 담당자들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과
실행 역량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준비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 최소화
산림청이 앞장서겠다.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4일간(4.21~22, 4.28~29) ‘디지털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시스템은 산지 외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 국가유산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의 붕괴 위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산사태 예측·예보 발령 정보를 제공해 위기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이전에 산지와 인접한 야영장 등의 관련 정보도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야외 활동까지 안전관리 범위를 넓혀 범부처 공동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 모습

이번 교육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등 지방정부, 관계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및 사면관리 담당자 등 약 500명을 대상으로 전국 4개 권역(수도·강원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실무교육 내용은 △시스템의 정보와 기능 활용법, △시스템을 활용한 공동대응 협업체계 운영, △산사태 위험 예측 시 대피 등 대응요령, △산사태 예측정보의 이해 등으로, 실습 기반의 콘텐츠를 통해 협업 적용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재난업무 담당자들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과 실행 역량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준비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 최소화해 산림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DPA**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와

생활권 산사태 위험요소, 주민이 직접 찾는다!

산림청, 주민참여 산사태 예방사업 공모 실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민이 직접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발굴하고,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신청하는 '주민참여 산사태 예방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사방댐 대상지 중심으로 운영한 공모를 올해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도 포함하여, 생활권 주변 산림재난 위험요소를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거주하는 지역 등 산사태 예방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지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토석류 예방사업 대상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과거 토사유출 피해가 있었던 지역, △계곡 또는 사면이 불안정해 하류 민가로 토석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산사태정보시스템 웹을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우편(산림청 산사태방지과)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기 이전 선제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273)로 문의하면 된다. **KDPA**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



주민참여 산사태 예방사업 공모

신청기간 2026년 4월 6일 ~ 5월 29일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사방댐

신청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지역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사방댐 대상지

-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토석류 예방사업 대상지
-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과거 토사유출 피해가 있었던 지역
- 계곡 또는 사면이 불안정하여 하류 민가로 토석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등

제출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으로 제출



바로가기

- (스마트산림재난 앱) 스마트산림재난 앱 설치 ➡ 산사태 예방사업 공모신청 ➡ 신청서 작성 ➡ 전송
- (전자우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bkpark1976@korea.kr, 사방댐 pomree@korea.kr
-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고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추진절차 | 신청(일반국민) ➡ 접수 및 검토(산림청) ➡ 현장확인 및 우선순위 결정(지방정부 또는 지방산림청)

➡ 결과통보(신청인) ➡ 사업 실행(지방정부 또는 지방산림청)

결과통보 | 사업대상지 선정 여부 및 우선순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우편 또는 e-메일)

경상북도, 2026년 ‘산사태 피해 제로’ 목표... 예방 중심 선제적 대응 총력

622억 원 투입, 사방댐 100개소 등 산사태 안전망 구축
산사태취약지역 체계적 관리와 주민 안전교육 실시



“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예방과 대비뿐이며
기상특보와 산림재난 문자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 징후 감지 시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길
당부드린다.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피해지의 지반 약화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 제
로’를 위한 산사태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1. 우기 전 완료 목표, 622억 원 규모 사방 인프라 전격 투입

경북도는 3월 초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와 동시에 총 622
억 원(국비 436억 원, 도비 131억 원, 시군비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사방 사업에 착수한다. 여름철
장마 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
방댐 100개소 △계류보전 60km △산지사방 24ha △산
림유역관리 18개소 등이다.

사방사업 완료 후에도 정기점검과 준설사업 등을 통하여
시설이 상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2. 산사태취약지역 체계적 관리와 주민 안전 교육 실시

사방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산사태취약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홍보한다. 산사태취약지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되며, 표지판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취약 지역 내 주민들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산사태 발생징후, 대피소 위치, 대피요령 등 현장에서 교육하는 ‘찾아가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산사태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인다.

3. 「산림재난방지법」시행으로 산사태위험관리 및 복구권한 강화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재난 관리의 실효성이 대폭 높아졌다.

먼저, 관리 범위가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 인접 지역(경계로부터 50m 이내)까지 확대되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산사태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 시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도 복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신속한 산사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 도민 참여 및 당부 사항

경북도는 기존 사방시설의 방재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법 시행으로 관리대상이 산림 인접지까지 넓어진 만큼 사방 사업 투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방사업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내 위험도에 따라 우선 선정되며, 관련 사업 신청은 각 시·군 산림 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순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예방과 대비뿐이라고 강조하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기상특보와 산림재난 문자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 징후 감지 시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산사태 대비 주민대피 '골든타임' 사수... 경상남도, 실전형 모의훈련 실시

도내 252개 읍면동 대상... 주민대피체계 점검·보완
실제 상황 가정한 전 과정 실전훈련으로 재난 대응력 강화
공무원·주민 대응역량 높여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 기대



“ 산사태는 대응이 어려운
재난인 만큼 위험징후 시
신속한 사전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주민들께서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장마철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
심으로 '주민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사태로부터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극한호우 상황을 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로
대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산림·재난·복지 부서
와 경찰·소방,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대피 절차 전반을 점검
한다. 훈련을 통해 담당자별 임무와 역할, 대피소 위치, 대피
경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숙지할 계획이다.

산사태는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재난으로, 사전 주민대피
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선제적인 주민대피체계를 점검하고, 공무원과
주민의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훈련은 도내 252개 읍면동 단위로 실시되며, 5월에는 산
림청·경남도·합천군이 참여하는 중앙합동 주민대피 훈련
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대피 모의훈련 실시 모습

이재철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사태는 대응이 어려운 재난인 만큼 위험징후 시 신속한 사전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주민들께서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PA**

경상남도 산림휴양과

주민대피 모의훈련 추진일정

□ 시군별 추진일정

시군	읍면동	본청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주민	추진기간	비고
계	252	238	816	806	2,179		
창원시	29	23	60	22	85	4.23	
진주시	19	9	38	76	108	4.27 ~ 5.14	
통영시	7	5	35	20	56	4.20 ~ 5.14	
사천시	12	21	60	48	120	4.23, 5.8	
김해시	11	16	22	44	58	5.13	
밀양시	15	3	68	60	259	5.11~14	
거제시	16	5	36	48	51	4.24 ~ 5.14	
양산시	19	6	60	48	126	4.28 ~ 5.14	
의령군	13	8	64	52	137	4.22 ~ 5.14	
함안군	10	15	20	27	100	4.14	
창녕군	13	39	73	37	151	3.24 ~ 4.2	
고성군	14	20	29	48	105	4.29	
남해군	10	6	20	40	50	4.29 ~ 5.8	
하동군	13	22	84	10	165	4.27, 29	
산청군	11	7	55	44	110	3.23 ~ 4.28	
함양군	11	17	22	66	110	4.21 ~ 4.30	
거창군	12	9	36	48	200	4.23	
합천군	17	7	34	68	188	4.24 ~ 5.14	

충청남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장마 전 마무리 총력

도, 사방댐 23개·계류보전 38km 등 208억원 투입 사방사업 8종 실시

“상류에 설치한 사방댐은 산사태로 흘러내리는 토석류를 차단해 하류 가옥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한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충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 등 총 208억원 규모의 사방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총 8종으로 이 중 신규 사업은 △사방댐 23개 설치 57억원 △계류보전 38km 구간 조성 74억원 △산지사방 12ha 9억원 등이다.

도는 산사태 예방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장마 시작 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품질향상 및 목표달성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 추진사항 점검 영상회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도·시군, 산림자원연구소 등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통해 지난해 산사태 피해 복구지 사업 및 올해 사방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7월 16~20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82.83ha의 산사태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산림재해대책비 18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점검 등은 3월중 완료했다. 나머지 사방시설 점검, 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은 오는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용길 산림휴양과장은 “상류에 설치한 사방댐은 산사태로 흘러내리는 토석류를 차단해 하류 가옥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PA**

충청남도 산림휴양과 산림방재팀

[브리핑 & 뉴스]

정책브리핑

- 01 |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 위해,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 02 | 각종 재난·안전정보, '국민안전24'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03 | 막힌 빗물받이 뚫고, 노후 제방 보강 등
여름철 침수 위험요소 미리 조치한다
- 04 |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 개최
- 05 |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드론 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 06 |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 범정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07 |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

Together for
Safe Korea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 위해,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4.13.~24.)
생명안전 5대 분야(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점검 체계 구축

“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안전의 날’(4.16.)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4월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입법 예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관, 국조실장, 원안위원장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국민 누구나 관보(gwanbo.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명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DPA**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개요

□ 추진 배경

- ▶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주요 안전정책의 심의·의결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 위원회 기능: ①생명존중 안전사회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전략 수립, ②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추진사항 점검, ③안전약자 보호 관련 제도 평가·개선 등을 심의

* 생명안전 5대 분야: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 ▶ 위원: 위원장(대통령)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40명 이내

당연직 위원 (18명)	+	위촉위원 (21명 이내)
과기정통·교육·외교·법무·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노동·국토·해수·중기부·기획처 장관, 국조실장, 원안위원장		생명안전, 재난·안전관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부위원장(2명): 행안부장관, 대통령 지명 위촉위원

※ 이외 필요시 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참석 요청 가능

- ▶ 조직: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단, 사무기구 등 설치
 - 안전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 구성·운영
 -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 설치

- ▶ 운영: 위원장은 회의 소집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향후 계획

- ▶ 입법예고·법제심사(4월 중),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시행(5월 중)

각종 재난·안전정보, ‘국민안전24’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 ‘국민안전24’로 통합 연계해 본격 운영(4.30.)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과 직결된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재난안전정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민재
난안전포털’을 ‘국민안전24’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

그간 재난·안전정보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에 불
편하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
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안전24’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안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민 체험단을 운영해 화면 및 내용 구성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편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5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24’로 통합 연계했다. 이에 따라 원
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누리집을 일일이 기억하고 찾
아다닐 필요가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 ①국민재난안전포털(행동요령), ②생활안전지도(안전정보), ③안전신문고
(안전신고), ④국민안전교육플랫폼(교육자료), 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
리시스템(놀이시설점검)

기상특보나 사고정보 등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 유형은 기존 9종에서 26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재난

〈 실시간 재난상황을 제공하는 재난 유형 〉

기 존 (9종)	개 선 (추가 17종)
태풍, 적조, 산불, 감염병, 가축질병, 가뭄예경보, 미세먼지, 교통정보, 화재정보	홍수, 호우, 폭풍해일, 황사, 폭염, 한파, 대설, 건조, 지진, 강풍, 풍랑, 해파리, 패류독소, 산사태, 전력, 방사선, 여행경보

〈 사용자 위치기반 재난·안전정보 〉

기 존(20종)	개 선(추가 23종)
국립공원대피소, 경찰서, 소방서, 혈액원, 약국, 일반병원, 보건소, 응급의료센터, 대사관, 민방위 대피시설,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급경사지, 화학사고대피장소, 한파쉼터, 무더위쉼터, 미세먼지쉼터, 지진경응임시주거시설, 이재민임시거주시설, 비상급수시설	하천범람지도, 산불발생이력, 지진발생이력, 침수흔적도, 해안침수예상도, 열분포도, 해양사고발생현황, 가스사고발생이력, 해안제방시설, 산사태위험도, 상습결빙구간, 교통사고다발구역, 대형교통사고발생정보, 폐기물처리시설, 화학물취급시설, 시설안전등급도, 물놀이관리지역, 졸음쉼터, 자동심장충격기, 오존주의보, 해양경찰서, 인명구조장비함, 어린이안전놀이시설점검

별 상황정보, 재난문자, 대피소 위치, 국민행동요령을 통합 안내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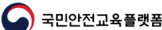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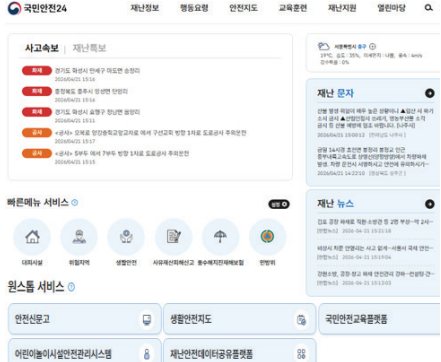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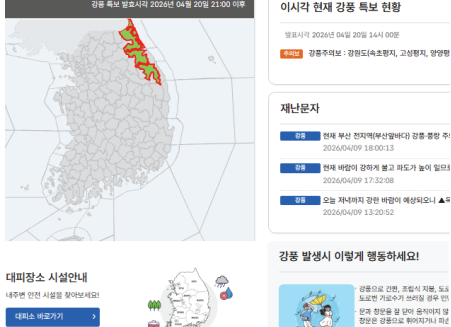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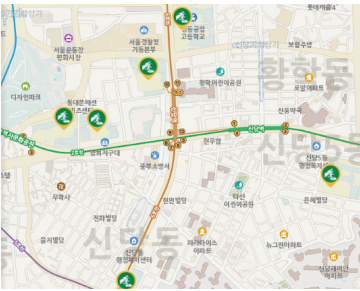
사용자 위치기반(지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보도 기존 20종에서 43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관심위치를 설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주변 재난·안전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전용 누리집을 별도로 개설하고, 제공하는 언어도 기존 영어 1개에서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등 22개로 대폭 늘렸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1만 명(26.2월말 기준, 법무부) 중 264만 명(149개국 22개 언어)이 자신의 모국어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과 직결된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정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DPA**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

'국민안전24' 개편 사항

구분	기존	개선																
정보 창구	[5개 창구 분산]  안전신문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1개 창구로 일원화] 																
재난 정보 제공	유수소통 지장 여부, 주변 지역과의 조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재난문자, 행동요령, 대피소 정보 한 화면 종합 제공] 																
위치 기반 정보 제공	[텍스트 기반 정보 제공] <table><tr><th colspan="2">지진옥외대피장소</th></tr><tr><th>시설구분</th><th>시설명</th></tr><tr><td>학교운동장</td><td>중로산업정보학교 운동장</td></tr><tr><td>공원</td><td>송인(근린)공원</td></tr><tr><td>공원</td><td>지봉골공원</td></tr><tr><td>공원</td><td>낙산어린이공원</td></tr><tr><td>학교운동장</td><td>창신초등학교 운동장</td></tr><tr><td>학교운동장</td><td>명신초등학교 운동장</td></tr></table>	지진옥외대피장소		시설구분	시설명	학교운동장	중로산업정보학교 운동장	공원	송인(근린)공원	공원	지봉골공원	공원	낙산어린이공원	학교운동장	창신초등학교 운동장	학교운동장	명신초등학교 운동장	[위치기반 재난안전 정보 제공] 대피시설 ☐ 한방위 대피소 ☒ 지진옥외 대피소 ☐ 지진해일 대피소 ☐ 화재사고 대피소 ☐ 한파쉼터 ☐ 무더위쉼터 ☐ 미세먼지쉼터 ☐ 지진경음 임시주거시설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 국립공원 대피소 ☐ 비상급수시설 
지진옥외대피장소																		
시설구분	시설명																	
학교운동장	중로산업정보학교 운동장																	
공원	송인(근린)공원																	
공원	지봉골공원																	
공원	낙산어린이공원																	
학교운동장	창신초등학교 운동장																	
학교운동장	명신초등학교 운동장																	
외국어 제공	[1개 언어] 영어	[22개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몽골어, 미얀마어, 신할리어, 벵골어, 우르두어, 프랑스어, 아랍어, 스페인, 독일어, 포르투갈어, 힌디어																

막힌 빗물받이 뚫고, 노후 제방 보강 등 여름철 침수 위험요소 미리 조치한다

재난특교세 지원 규모 확대해 867억 원 지원, 교부 시기는 3월로 앞당겨 집행
빗물받이·중소하천 정비,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 집중 지원

“재난 위험을 예측해 철저히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25년 585억 원 → 금회 867억 원, 48.2% 증가)를 대폭 늘렸으며,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한다.

※ ① 빗물받이 :

'25년) 300억('25.6.19) → '26년) 326억(3월) / 8.7% 증가

② 중소하천 :

'25년) 105억('25.4.18) → '26년) 346억(3월) / 229.5% 증가

③ 풍수해안전망 :

'25년) 180억('25.4.18) → '26년) 195억(3월) / 8.3% 증가

〈빗물받이 정비(326억 원)〉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관로의 준설 및 정비까지 지원해 지역의 배수능력을 강화한다.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346억 원)〉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중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노후 제방·호안·홍수방어벽 등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치수능력을 높인다.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19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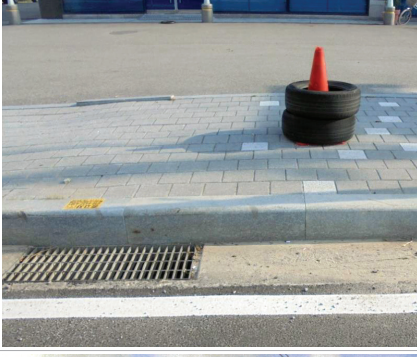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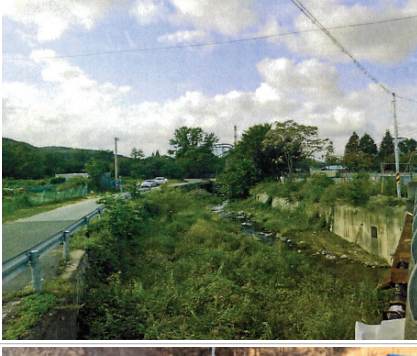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곳곳의 소규모 석축·옹벽, 배수로, 낙석 방지시설 등 위험 시설을 개선해 일상 속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3대 역점사업을 지방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난 위험을 예측해 철저히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말씀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KDPA**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재난특교세 지원 분야별 정비 사례

분 야	정비 전	정비 후
빗물받이 (청소)		
빗물받이 (안내 표시 및 홍수비상구 설치)		
중소하천 (준설 및 호안 정비)		
풍수해안전망 (배수로 정비)		

똑똑한 지도가 우리 동네 안전과 행정을 바꿉니다!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 개최

국토부·지방정부·산업계 협력 통한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땅 위 도로부터 땅 속 배관까지 디지털로 촘촘하게 관리하여 재난 대응력 강화

“공간정보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정책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이호재)은 4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도로대장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미래 신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축척 수치지형도(1/1,000)를 말하며, 건물, 도로, 맨홀, 전주 등을 포함하는 정밀한 지도로 현실 세계의 지형지물을 정확한 위치(최대오차 60cm 이내)에 표현

** 도심교통항공(UAM), 자율주행로봇(AMR), 자율주행차, Geo-AI(공간정보 특화) 등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며,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공간정보 산·학·연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을 주제로 공간정보 산업과 지방행정의 접점을 모색하여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에 맞춰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공유하였다.

특히,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해 최신기술 적용 공간정보 활용 사례, 행정 혁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첫날인 9일 오후부터 '데이터를 잇다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도로분야에서는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방향, 정밀도로지도 추진 현황 및 도로대장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등을 다룬다. 지하분야에서는 지하시설물 구축 정책과 지방정부 활용 사례,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을 공유하였다.

둘째 날에는 '23년부터 지방정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활용 사례*와 '27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 고정밀 전자지도와 지하시설물, 도로대장 및 BIM과의 연계·활용 사례 등

특히 사전에 접수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공간데이터 구축 방향 및 법·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었다.

이번 포럼은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도기반 다양한 공간정보(도로대장, 지하시설물 등)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과 도시 관리 역량 강화 등 지방행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간 우수 사례 공유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공간정보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정책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국민 생활편익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KDPA**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

일 시 2026. 04. 09. (목) ~ 04. 10. (금)

장 소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

대 상 국토교통부, 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 공간정보 산·학·연 관계자

프로그램

04.09. (목)	프 로 그 램	비 고
12:30 ~ 13:00	참가자 등록	
13:00 ~ 13:20	개회 및 기념촬영	
13:20 ~ 14:00	(기조발제) 데이터 연계 기반 가치 창출	ITS 협회
14:00 ~ 15:50	(1부 발표) 디지털 도로대장	국토부, 지리원, LX공사
15:50 ~ 16:10	휴식 및 비즈니스 미팅	
16:00 ~ 18:00	(2부 발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LX공사, 품관원, 건기연, 지하정보DB 사업단

04.10. (금)	프 로 그 램	비 고
09:00 ~ 10:30	(3부 발표) 고정밀 전자지도	고양시, 구미시, 포천시, 지리원, 토목학회
10:30 ~ 11:00	휴식 및 비즈니스 미팅	
11:00 ~ 12:30	건의 사항 공유 및 종합 토론	



의견 수렴 QR



발표자료 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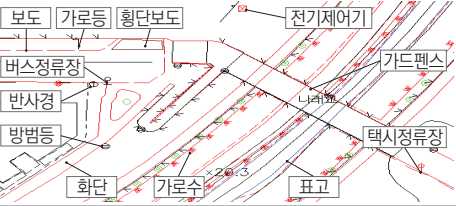
아산시 정보 QR

공간정보 미래 新산업 활용 사례

구분	설 명	공간정보 활용사례
도심교통항공 (Urban Air Mobility)	 도심 내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등을 이용하여 승객이나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항공교통체계	- 비행경로 설정 및 관리 - 도심 내 고층 건물, 전선, 기타 장애물 정보를 포함한 3차원 정밀 지도를 구축하여 안전한 비행 경로를 설정 - 버티포트(이착륙장) 위치 선정 - 버티포트 주변의 건물 높이 장애물 정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이착륙 경로를 설계 
자율주행 로봇 (Autonomous Mobile Robot)	 첨단센서와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를 탐색하여 이동하는 첨단 로봇	3D 공간 매핑 3D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로봇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고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 - 실내 내비게이션 - 실내 공간정보(지도, 건물 정보 등)를 활용하여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안내(로봇청소기 등) 
자율주행차 (Autonomous Car)	 운전자의 개입 없이 카메라와 센서, GPS 등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	- 실시간 최적 경로 계산 - 고정밀 지도를 활용하여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여 안전한 운행 지원 - GPS 및 센서 융합 - GPS,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 

고정밀 전자지도(1/1,000) 와 국가기본도(1/5,000) 비교

〈 1K 5K 수치지형도 간 비교 〉

구 분	1:5,000	1:1,000
비교		
구축현황	전 국토	도시지역 일부(전 국토의 11%)
정밀도	등고선 간격 5m 최대오차 3.5m	등고선 간격 1m 최대오차 0.7m
정보량	도로·건물 등 460여개 지형지물	보도·가로수·정류장 등 약 4천여개 지형지물
활용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SOC 설계	IoT 기반 시설관리, 교통, 방재

□ 활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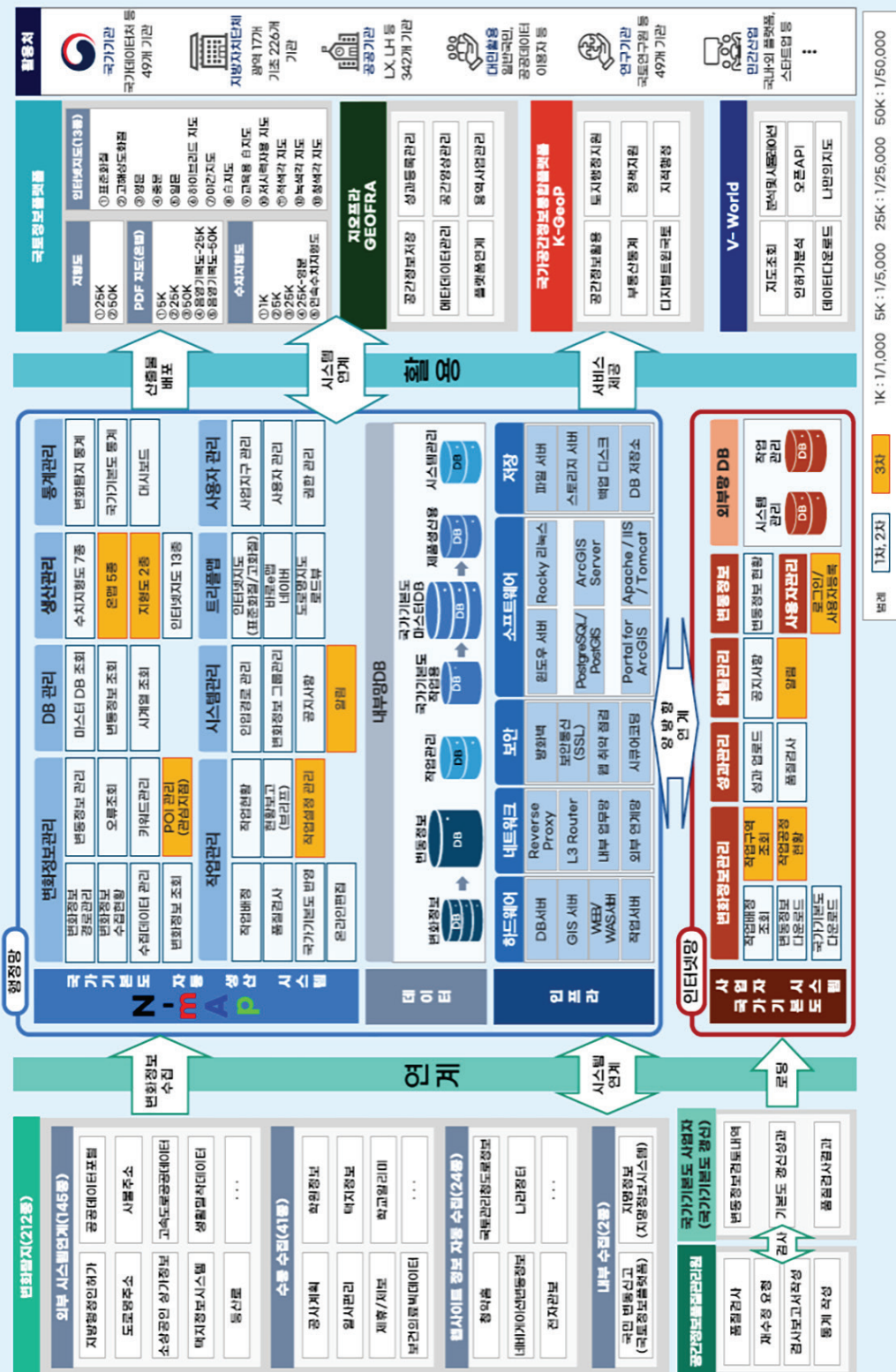
- ▶ **(공공)** 국현행 42개 법령, 13개 자치법규, 14개 행정규칙의 85개 업무에서 계획수립, 도면고시, 민원인에 의한 허가 및 변경신청에 따른 검토 시 활용

*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등에 1/1,000 수치지형도 활용

- ▶ **(민간)** 토목·건축설계, 내비게이션의 배경지도, 시설물 관리 등
 - **(교통)**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약자 이동경로 제공(턱 없는 길, 휠체어 전용로 등), 시각장애인용 점자보도 불력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가능
 - **(시설물 통합관리)** 상하수도 및 열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1/1,000 전자지도 기반으로 주변 시설 및 지하시설물과의 통합 관리
 - **(하천관리 강화)** 1/1,000 전자지도 구축을 통해 전국의 모든 하천 공간정보를 일원화 및 통합관리로 물관리 가능
 - **(산림재해 대응)** 산불 등 발생시 신속하게 차량 또는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 등의 정보를 1/1,000 전자지도로 구축하여 제공 가능

* 산악지역의 임도(산림의 관리 등을 위한 도로)가 포함된 1/1,000구축 필요

국가기본도 자동생산관리체계 목표시스템 구성도(K-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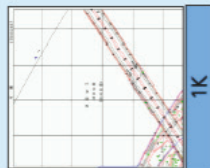


* K-mAp(Korea National Base Map based on Geo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 변화된 행정정보(건물, 도로명주소, 부동산종합부등)를 수집하여 객체 단위로 자동 수정□객신이 가능한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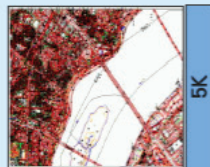
국가기본도 자동생산관리체계 생산 제품 목록

1K : 1/1,000 5K : 1/5,000 25K : 1/25,000 50K : 1/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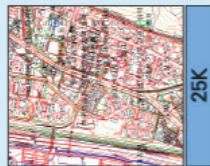
수치지형도1.0(4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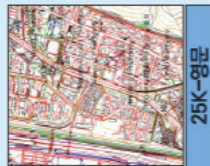
1K



5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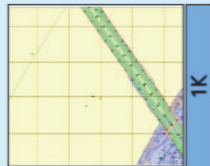


25K



25K-영문

수치지형도2.0(3종)



1K



5K



연속수치지형도

지형도(2종)



25K



50K

PDF 지도(은택)(5종)



5K



25K



50K



은영기복도-25K



은영기복도-50K

인터넷지도(1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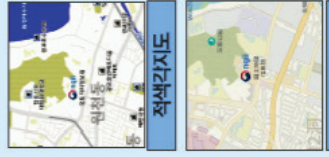
표준화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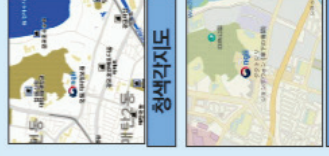
고해상도화질



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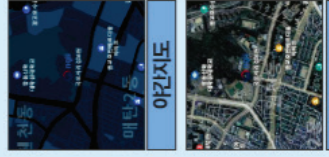
교육용 자지도



일문



청색각지도



아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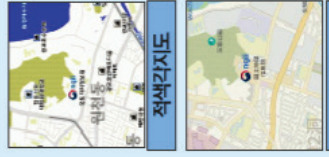
표준화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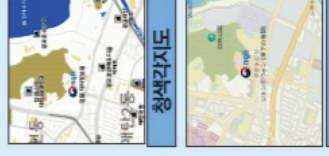
고해상도화질



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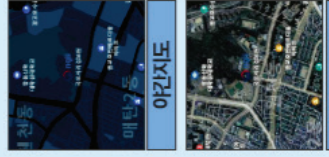
중문



일문



저시력자용지도



하이브리드지도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드론 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 드론 상용화 지원 19개 기업·컨소 선정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1.7~2.5)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지역 내 공공서비스 등에 실증·적용하는 사업이며,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드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1.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결과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분야 및 참여 지자체 〉

분 야	선정 지자체	
K-드론배송 상용화 (25개 단위사업)	기존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경기 이천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강원 원주시, 충남 공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보령시, 경북 김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경남 통영시*, 울산 울주군, 전북 김제시, 전남 고흥군
	신규	수원특례시,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논산시, 경북 구미시, 경북 울진군, 경남 밀양시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4개 단위사업)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북 전주시, 전북 남원시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8개 단위사업)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경기 양주시*, 경기 평택시, 충남 공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통영시*	

* 2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지자체

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

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분야 및 참여 기업 〉

분 야	세부사업(선정 수) 및 대표사업자			
5대 완성체 상용 개발 (8개 사업자)	소방(1)	엔젤력스	항공안전(1)	엔에이치네트웍스
	물류(1)	나르마	농업(2)	볼로랜드, 서우
	시설관리(3)	시에라베이스, 어드바이저로렌, 파블로항공		
부품국산화 (4개 사업자)	모터(2)	케이알엠, 에이력스	배터리(2)	LG엔솔, 비이아이
핵심기술상용화 (7개 사업자)	충돌방지(2)	탐스커뮤니케이션, 유비파이	항재밍장치(2)	에이디시스템, 다빈치랩스
	영상송수신장치(3)	쿠오피, 아스트로엑스, 프리뉴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분야 및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① 5대 완성체	• (소방) 소방 특화 고중량 드론·임무 장비 국산화 개발 • (항공안전) 공항 조류 대응 등 AI 군집 드론 시스템 개발 • (물류) 수직이착륙 하이브리드 기반 배송용 상용 드론 플랫폼 개발 • (농업) 농업용 고중량 드론 및 자동 방제 운용체계 상용화 개발 • (시설관리) AI 기반 결합 탐지 기술 융합 교량 안전 점검 솔루션 상용화
② 부품 국산화	• (모터) 드론 핵심 구동계 국산화를 통한 양산 체계 구축 • (배터리) 고수요 규격 국산 상용 드론 배터리 개발 및 공급망 구축
③ 핵심기술 상용화	• (충돌방지) 실시간 자율 항법 및 공중 충돌 방지 기술 상용화 • (영상송수신) 장애환경 대응 등 영상 송수신 통신 모듈 국산화 • (전파교란방어) 소형 드론 탑재형 관성항법 활용 전파방해 대응기술 개발

2.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모터·배터리)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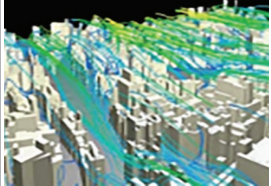
* 드론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에 선택·집중으로 산업·재난 현장의 노동집약적 구조 개선,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작업·관리 등 국가 드론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지원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체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 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DPA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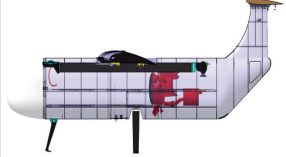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인천광역시	• (배송 고도화) 드론 활용 덕적도 등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1개소, (배달점) 7개소 - 실증장소 : 덕적도, 대이작도 • (레저) 국제행사 연계 2026 FIDA Intercontinental Cup 개최 • (공공서비스) 드론 활용 오벽 점검, 외벽 청소, 도시 열환경 3D맵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 (배송 고도화) 무인자동화 기반 섬 배송, 온라인 연계 해산물 역배송 ※ (배송거점) 4개소, (배달점) 8개소 - 실증장소 :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 연계사업 : 제주 부속섬 해상안전 순찰 및 안전 모니터링 • (공공서비스) A드론 기반 한라산 국립공원 복합 공공임무 서비스 실증	
경기 성남시	• (배송 고도화) 공원 드론 배송 서비스 및 생활편의 서비스 ※ (배송거점) 2개소, (배달점) 9개소 - 실증장소 : 중앙공원, 탄천공원 * 연계사업 : 공원 시설물 관리, 탄천 범람 사고 예방 모니터링 • (공공서비스) 드론 활용 3D 공공안전 데이터 구축 기반 행정 서비스	
경기 이천시	• (배송 고도화) 유통물류 연계 공원 드론 배송 상용화 ※ (배송거점) 3개소, (배달점) 8개소 - 실증장소 : 설봉공원, 북한천공원, 청미천비행장 * 연계사업 : 하천 구역 정기순찰, 드론 공공점검소 구축, 비행관제 인력 양성	
경기 시흥시	• (배송 고도화) 주변 상권 연계 도심 공원 드론 배송서비스 상용화 ※ (배송거점) 1개소, (배달점) 4개소 - 실증장소 : 배곧한울공원, 옥구공원	
경기 양주시	• (배송 고도화) 주요 관광지 연계 공원 드론 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3개소, (배달점) 9개소 - 실증장소 : 나리농원, 장흥자연휴양림, 양주시청 * 연계사업 : 산림지역 순찰 및 불법소각 단속, 병원 연계 혈액 수송 • (공공서비스) 드론 활용 재난·안전 서비스	
경기 안양시	• (배송 고도화) 도심 환경 속 사찰·공원 드론 배송 및 안전 서비스 ※ (배송거점) 3개소, (배달점) 12개소 - 실증장소 : 불성사, 삼막사, 망해암, 삼막애견공원, 체육공원, 안양천 등 * 연계사업 : 안양천 및 관악산-수리산 안전사고 예방 안내 서비스	
강원 원주시	• (배송 고도화) 지역 레저산업 연계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 (배송거점) 2개소, (배달점) 7개소 - 실증장소 : 황둔정보화마을,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야영장, 캠핑장 * 연계사업 : 산림 및 캠핑 지역 산불감시 등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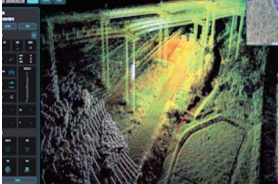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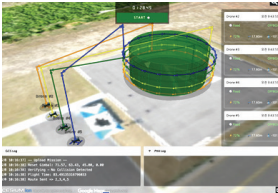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충남 공주시	• (배송 고도화) 지역 축제 연계 드론 배송 및 문화재 관리 서비스 ※ (배송거점) 3개소, (배달점) 15개소 - 실증장소 : 산성시장, 공나루어린이수영장, 산림휴양마을 등 * 연계사업 : 시드론 활용 문화재 및 하천 지역 순찰 • (공공서비스) 스마트 드론 활용 산불·화재 감시 및 빅데이터 지도 구축	
충남 서산시	• (배송 고도화) 가로림만 부속섬 라스트마일 드론 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3개소, (배달점) 14개소 - 실증장소 : 고파도, 우도, 분점도, 캠핑장, 해수욕장, 좌대 등 * 연계사업 : 가로림만 섬, 해양 관광지, 갯벌체험장 순찰 및 수색	
충남 보령시	• (배송 고도화) 원산도 중심 부속섬 지능형 K-드론배송 상용화 ※ (배송거점) 2개소, (배달점) 14개소 - 실증장소 : 삼시도, 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소도, 추도, 허육도, 월도 등 * 연계사업 : 시드론 활용 해루질 활동 위험관리 및 해양 안전 모니터링	
경북 김천시	• (배송 고도화) 김천시 산단 지역 등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 (배송거점) 4개소, (배달점) 14개소 - 실증장소 : 김천혁신도시, 김천산업단지, 직지사, 조마면사무소 * 연계사업 : 불법드론 식별체계 구축 및 군/경 드론 훈련 지원	
경북 상주시	• (배송 고도화) 경천섬 특화 드론·로버 음식 배송 서비스 상용화 ※ (배송거점) 1개소, (배달점) 5개소 - 실증장소 : 경천섬, 상주오토캠핑장 등	
경북 영주시	• (배송 고도화) 공원 편의물품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 (배송거점) 3개소, (배달점) 8개소 - 실증장소 : 경북전문대, 영주호, 파크골프장, 문정단지, 서천단지 등 * 연계사업 : 영주호 하천변 안전 모니터링, 재활용품 역배송	
경남 통영시	• (배송 고도화) 달아항 부속섬 지역 드론 물품 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3개소, (배달점) 18개소 - 실증장소 : 저도, 송도, 학림도, 만지도, 연대도, 비진도, 옹호도 등 * 연계사업 : 해안 및 항만 지역 순찰, 항만시설 점검 • (공공서비스) 연안·양식 해역 적조 및 이상수온 현상 관리 서비스	
울산 울주군	• (배송 고도화) 산악·해안 관광지 드론 배송 및 주민 안전 서비스 ※ (배송거점) 2개소, (배달점) 16개소 - 실증장소 : 작천정, 종합체육센터, 야영장, 간월재, 해수욕장, 명선교 등 * 연계사업 : 산악·공원·해안 지역 주민 안전 및 불법행위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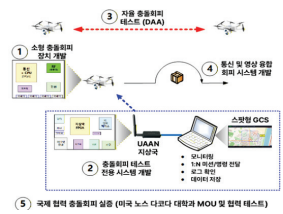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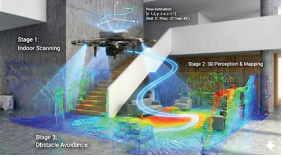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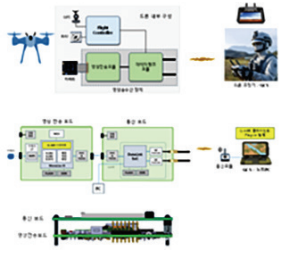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전북 김제시	• (배송 고도화) 공원 드론 배송, 경로당 생활 편의품 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3개소, (배달점) 11개소 - 실증장소 : 성산공원, 백산문화관, 농협, 수변공원 경로당 등 * 연계사업 : 산불 및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 산림 병해충 예방	
전남 고흥군	• (배송 고도화) 도서 섬지역 생활물류 드론 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4개소, (배달점) 10개소 - 실증장소 : 노을공원, 거금해양낚시공원, 득량도, 상화도, 하화도 등 * 연계사업 : 산림지역 산불 및 연안해역 해양쓰레기 감시 녹조 피해 관찰	
수원 특례시	• (배송 신규) 도심 공원 편의점 연계 드론 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2개소, (배달점) 8개소 - 실증장소 : 광교호수공원, 광교저수지, 캠핑장 등	
충북 충주시	• (배송 신규) 공원·관광지 드론 배송 및 역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2개소, (배달점) 10개소 - 실증장소 : 살미면 복지관, 마을회관, 수안보 농협, 중앙탑 공원 등 * 연계사업 : 배송지역 정기 점검 순찰서비스	
충남 당진시	• (배송 신규) 서해안 난지도 섬지역 드론 정기 물류 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2개소, (배달점) 8개소 - 실증장소 : 난지도, 삼교천, 캠핑장, 호수공원 등 * 연계사업 : 관광지 및 해안 지역 순찰, 응급상황 의료지원 서비스	
충남 논산시	• (배송 신규) 지역 행사 연계 공원 드론 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2개소, (배달점) 8개소 - 실증장소 : 로컬직매장, 논산문화원, 탐정호, 군사박물관, 시민공원 * 연계사업 : 하천변 안전감시, 불법 사고 예방 드론순찰	
경북 구미시	• (배송 신규) 도심 공원 음식료품, 캠핑용품 등 드론 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3개소, (배달점) 8개소 - 실증장소 : 예곡랜드, 낙동강 체육공원, 캠핑장 등	
경북 울진군	• (배송 신규) 후포항구 기반 하이브리드 중·장거리 드론 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1개소, (배달점) 1개소 - 실증장소 : 후포항, 백암산	
경남 밀양시	• (배송 신규) 지역 특산품 배송, 도심 외곽 고령층 생필품·배송 서비스 ※ (배송거점) 2개소, (배달점) 7개소 - 실증장소 : 삼문동수변공원, 하남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밀양강 등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충청북도	• (레저) 2026 WDSF 코리아 글로벌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 - WDSF(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주관 국제대회 및 국제 세미나 운영 - 드론 레저 스포츠 운영기술, 통신안정화, AI 기록·분석·중계 실증	
전북 전주시	• (레저) 2026 드론 축구 세미프로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개최 - K-드론 축구 글로벌 공정성 확보를 통한 세계화 추진 -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시범종목 채택을 위한 글로벌 경기 표준화 - 관람형 콘텐츠 제공 및 국산 드론 부품 활용 경기 운영	
전북 남원시	• (레저) 국제 드론 레이싱 월드 챔피언십 개최 - 국제 드론 레이싱 연맹 총회 개최 및 본부 설립 - 국제 수준 첨단 경기 시스템 구축 및 보급 - Class 4 국산 기체 보급·활용 촉진 및 드론 스포츠 동호회 운영	
경기 평택시	• (공공서비스) 반도체 클러스터 드론 AI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산업시설 진단·관리 시스템 구축 - 반도체 클러스터 내 가스공급시설 공공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산업시설 점검용 드론 및 AI 음향 진단 기술 국산화	
충남 아산시	• (공공서비스) AI·드론 활용 산림·농지 지역 고해상도 정사영상 구축 - 수직이착륙기 기반 도시 지형 변화 탐지 및 활용 서비스 구축 - 정기 갱신이 가능한 지속 운영형 정사영상 서비스 체계 - 도시관리, 환경·농지 관리, 재난·안전 대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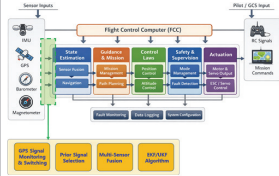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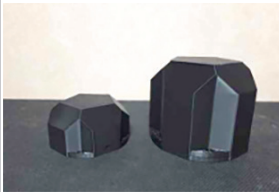
2026년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주요내용

분야	세부 사업	대표사업자 (참여사업자)	주요 사업내용	
5대 완성체	소방	엔젤릭스	- 소방 특화 고중량 드론 도입 및 국산화 개발 - (주요내용) 탑재중량 200kg, 3시간 이상 비행 소방드론 운용성 검증 - (국산화 제작) 해외 상용 드론 수준의 시제품 제작 및 국산화 개발 ※ 모빌리티랩,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 에스아이오티, 한국 세라믹기술원, 국립창원대, 경상국립대, 경남TP	
	항공 안전	엔에이치 네트워크	- 공항 조류 대응을 위한 AI 군집 드론 시스템 개발 - (주요 내용) 군집 드론 운용을 위한 드론 및 관제 시스템 개발 - (실·검증) 실 공항 환경에서 개발 시스템 조류 대응 실증 수행 ※ 마린로보틱스, 삼한엔지니어링, 한국광기술원	
	물류	나르마	- 틸트로터 VTOL 하이브리드 섬 배송용 상용 드론 플랫폼 개발 - (제원) 페이로드(15kg) 운용거리(150km), 비행시간(2.5시간), 틸트로터 - (국산화) 기체 프레임, 모터, 배터리, 비행제어컴퓨터 - (차별성) 통신 이중화(LTE, 위성), SW DO-178C 인증 획득	
	농업	서우 (빙커버스터즈)	- 주요 부품 100% 국산화 농업용 드론 개발 - (제원) 페이로드(30kg), 비행시간(15분) - (국산화) 기체 프레임, 모터, 배터리, 비행제어 컴퓨터, 데이터링크 - (차별성) 통합 관제 및 농업 특화 데이터 분석 SW 개발	
		볼로랜드 (다빈치랩스)	30L 농업용 고중량 드론 및 자동 방제·관측 운용 체계 상용화 - (제원) 페이로드(30kg), 비행시간(15분), 방수 방진(IP43) - (국산화) 기체 프레임, 모터, ESC, 배터리, FC, 데이터링크, 영상 송수신 장치, 카메라, 조종기 - (차별성) 농업 특화 장애물 회피 기술 개발, 다중 드론 제어 조종기 개발	

분야	세부 사업	대표사업자 (참여사업자)	주요 사업내용	
5대 완성체	시설 관리	시에라 베이스 (볼로랜드)	• 시설물 점검 자동화 특화 및 점검 자동화에 특장 점을 가진 3종 수준의 드론 시스템 개발 - (HW) 라이다 센서 기반 자율주행 국산 드론 설계 및 제작 - (SW) 자율비행 기술, 교량 하부/측면 점검경로 생성 기술 등 - (AI) AI 손상탐지 기술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어드바이저 로렌 (다온아이앤씨, 보다, 한국 항공대)	• 풍력발전기 내부 Non-GPS 환경 결함 탐지 국산 드론 상용화 - (HW) 라이다/비전 기반 좁은 통로 환경 충돌 방지 기능 내장된 드론 개발 - (SW) 라이다/관성항법 융합 충돌회피 경로계획 알고리즘 개발 - (AI) 결함탐지 AI 모델 개발, 디지털 트윈 융합	
		파블로항공 (평행공간 피아스페이스)	• GPS 음영지역 군집 자율비행 및 AI 기반 자동 결함 탐지 기술이 융합된 교량 안전 점검 토탈 솔루션 상용화 - (HW) 라이다 센서 기반 시설물 점검 드론 - (SW) 동시 운용을 통한 점검 시간 50% 단축 - (AI) AI 기반 표면 0.3mm급 미세 균열 탐지 및 신뢰도 검증	
부품 국산화	모터	케이알엠 (원탑이앤씨)	• 2kg·3kg·5kg·30kg·70kg급 고효율 모터 및 변속기 국산화 - (주요 내용) 모터 5종 개발 - (국산화) 일부 부품(베어링, 마그넷.) 제외 전면 국산 -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선정 (국토부/방사청)	
		에이력스 (이알)	• 드론 핵심 구동계 국산화를 통한 양산 체계 구축 - (주요 내용) 모터 5종 개발 - (국산화) 글로벌 표준 규격기반 BLDC 모터 전자기·기구 설계, 권선·열특성 최적화 및 국산화 설계 및 양산 - (공급망) 베트남 법인의 모터용 영구자석 등을 직접 조달	

분야	세부 사업	대표사업자 (참여사업자)	주요 사업내용	
부품 국산화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 (브이에너지로스 페이스, 한국드론기업연합회)	- 고수요 규격 국산 상용 드론 배터리 개발 및 공급망 안정화 - (주요 내용) 배터리 5종 개발 - (관리시스템) 셀 밸런싱, 이상 감지, 수명 예측 기능 등 탑재 - (국산화) 셀, 제어 회로기판, 와이어 하네스 등	
		비이아이 (쿼터니언, 케이디피태남)	- 원통형 고출력 드론 배터리 및 차세대 배터리 국산화 - (주요 내용) 배터리 3종 개발 - (관리시스템) 관리시스템 최적화 설계/개발 및 배터리 보호시스템 개발 - (국산화) 셀, 회로기판, 하우징, 내장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충돌 방지	탐스 커뮤니케이션 (한국무인 이동체연구조합, 쿼터니언)	- 자율 공중충돌방지 장치 개발 - (주요내용) 국내 통신 및 영상 통합회피 시스템 충돌방지장치 개발, 충돌회피 테스트 전용 자상관리 시스템 개발 - (실·검증) 국내외(미국 등) 충돌회피 충돌방지 테스트 실증, 비행항로 보호, 항로교차로 충돌 방지 실증 등	
		유비파이	- 정방위 시각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자율 항법 및 공중 충돌 방지 통합 상용화 및 실증 - (주요내용) 시각 인공지능 기반 전방위 장애물 탐지모듈, 전방위 영상기반 항법모듈 개발, 공중충돌방지 통합회피 모듈 개발 - (실·검증) 5대 이상 군집 드론 운용 환경에서 실증 및 검증	
	영상 송수신	쿠오핀 (캠틱종합기술원)	- 영상송신기 국산화, 영상 전송 및 통신 모듈 개발 - (주요 내용) WiFi 기술 기반 장거리 통신 모듈 개발 - (제원) 인코딩 지연(100ms), 소비전력(10W), 대역폭(20Mbps), 무게(100g) - (차별점) 고속 패킷 처리 전송을 위한 NP(Network Processor) 반도체 IP 기술과 영상 코덱 기술을 융합한 초저지연 영상전송 반도체 상용화	

분야	세부 사업	대표사업자 (참여사업자)	주요 사업내용
핵심 기술	영상 송수신	아스트로 엑스	5.8GHz 대역 아날로그 FPV VTX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제품 개발 (주요 내용) 영상 인코딩을 수반하지 않는 아날로그 기반 구조 하드웨어 설계, 드론 탑재를 위한 경량화 및 소형 기판 설계 (제원) 영상 지연(20ms), 소비전력(5W), 무게(10g)
		프리뉴 (아이닉스, 에이치에스 에이디씨)	- 드론 장애 환경 대응을 위한 영상송수신장치 국산화 개발 (주요 내용) 카메라 영상처리모듈 및 통신장치 일체형 설계 (제원) 인코딩 지연(100ms), 소비전력(10W), 대역폭(20Mbps), 무게(100g) (차별점) 통신 모듈 2종 개발 및 Blue UAS 인증
	항재밍	에이디 시스템	- GPS, 카메라 센서 기반 항법 시스템 활용 항재밍 장치 개발 (항재밍) 재밍/스푸핑 탐지 알고리즘 개발, 다중 안테나 및 다중 프로세싱 기반 GPS 모듈 개발 (성능) 검출 정확도(90%), 비행 안정성(5분), 데이터셋(100시간) (차별점) 카메라, 관성항법 기반 센서 모듈 개발 및 시스템 통합 개발
		다빈치 랩스 (볼로랜드, 경운대)	- 소형 드론용 지능형 통합 항법 장치 개발 (주요 내용) 항재밍을 위한 항법 장치 설계, HW 및 SW 개발 및 통합 (성능) 검출 정확도(90%), 비행 안정성(5분), 데이터셋(100시간) (실-검증) 지상 시험 및 실비행 시험을 통해 정량 검증 (차별점) 관성항법장치 제작하여 원하는 항법 센서 탑재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 법정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3월 24일부터 기후부 강우레이더 기상청 이관 및 통합 운영 체계 본격 가동
관측자료 공동 활용 확대와 운영 효율화로 기상·홍수 재난 대응 고도화

“이번 강우레이더 이관은
기관별 운영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고, 레이더 자료 공동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기상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적 수자원 관리 역량을 높이고,
홍수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국한호우,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한 강우레이더와 운영인력을 기상청으로 이관하여,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운영은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운영해 온 레이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관측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재난 감시 및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레이더 통합 운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등 특정 기간 위주로 활용되던 강우레이더를 연중(365일 24시간) 상시 활용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강수는 물론이고 강설, 우박, 바람 등 다양한 위험기상을 지상부터 상층까지 촘촘하게 감시함으로써 예보 지원 능력을 강화한다.

둘째, 기상청의 표준 품질관리 기술을 이관 장비에 적용하여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레이더 자료를 생산·공유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홍수예보(수문정보)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높인다. 특히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비구름의



발달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모니터링)하여, 위기경보
선행시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한다.

셋째, 장비 도입, 유지보수, 기술개발 등 운영 체계를 일원
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 투자를 줄인다. 동일
기종 장비 도입, 국산화 부품 공동 활용 등으로 향후 5년
간 약 174억 원(총 18대 기준)의 예산 절감이 기대되며,
운영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체계의 전문
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이번 통합 운영은 단순한 장비 이관을 넘어, 관측·
운영·기술개발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관측 기반(인프
라)를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양 기
관은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 체계를 고도화하고, 위험기상
발생 시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강우레이더 이관
은 기관별 운영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고, 레이더
자료 공동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상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적 수자원 관리 역량을 높
이고, 홍수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션 기상청장은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을
통해 365일 24시간 위험기상 감시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라며, “고품질 관측정보를 신속히 생산·제공하여 범정부
기후재난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KD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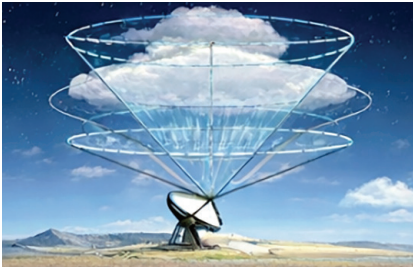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기후부-기상청 레이더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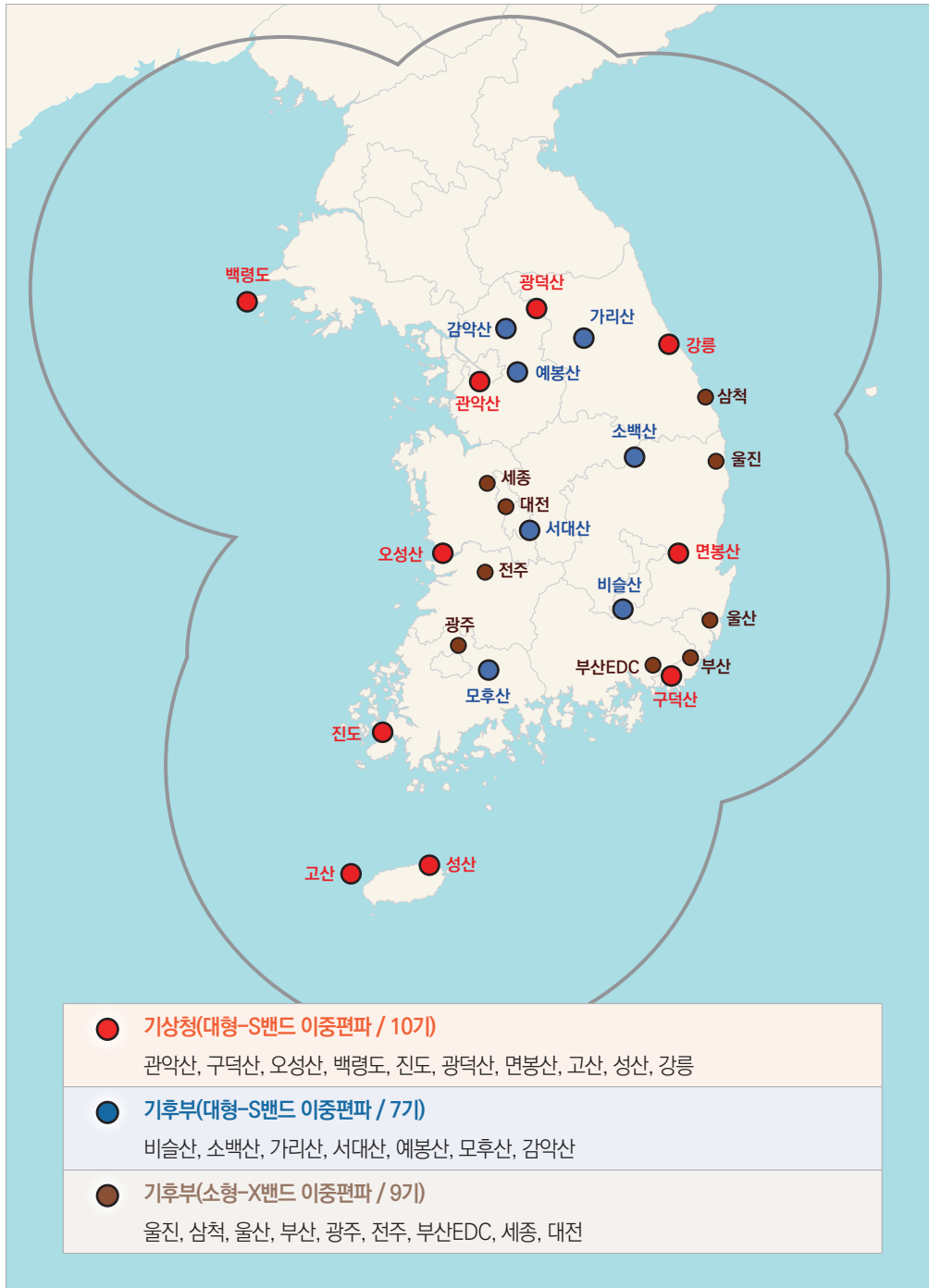
- ☑ 기후부(강우레이더)와 기상청(기상레이더) 레이더는 근본적인 기능과 특성이 동일하나, 운영 목적이 상이함에 따라 각 기관에서 레이더 자원을 독립적으로 도입·운영

□ 기관별 운영 현황(설치목적에 따라 이원화 운영)

- ◆ (강우레이더^{기후부}) 1999년 대통령실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시작으로, 홍수예보 등을 위한 강우레이더 구축·운영 중(대형 7기, 소형 9기, 테스트베드 1기)
- ◆ (기상레이더^{기상청}) 1969년 관악산을 시작으로, 위험기상 감시 및 방재대응 지원을 위한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운영 중(대형 10기, 테스트베드 1기)

구 분		강우레이더 (기후부)	기상레이더 (기상청)
주요목적		• 홍수기 중심 운영으로 유역별 강수상황 집중 감시 및 홍수예보 지원	• 연중 무중단 운영으로 기상상황(강수, 강설, 바람, 낙뢰 등) 감시 및 예·특보 지원
관측반경 관측방법/주기		 • 좁은 영역(대형 100km / 소형 30km) • 단일고도 관측 / 매 1분	 • 넓은 영역(대형 240km) • 9개 고도 입체관측 / 매 5분
산 출 물	강수량	• 강우강도, 유역면적 강수량	• 강우강도, 면적강수량, 강설강도, 읍·면·동 호우정보
	강수유형	-	• 대기수상체, 밝은띠, 눈·비 분류, 우박·착빙·낙뢰가능역
	바람	-	• WISSDOM, WISSDOM-AIR, 준-연직분포
	알림	-	• 강수시작, 호우, 우박, 낙뢰 알림
자료 활용		• 유역 강우 상황 모니터링 및 시·홍수예보모형에 활용 • 도시침수, 돌발홍수, 행정구역 단위 홍수 위험정보 제공 • 국립공원 탐방객 사전대비·통제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활용	• 전국 기상정보(강수·강설, 바람, 우박, 뇌우, 낙뢰가능역, 태풍중심분석, 도로 어는비 가능성 등)를 예·특보 및 항공기상 지원에 활용 • 기상청 초단기예보와 앱·웹 및 방송을 통해 레이더영상 365일 실시간 대국민 서비스

기관별 레이더 관측망 현황



※ (기상청) 대형-S밴드 TB 1기 및 (기후부) 소형-X밴드 TB 1기 별도 운영

① (기상청) 대형레이더관측소(10기) 및 테스트베드(1기)

백령도 (‘00.07, 운영) (‘14.04, 교체) [인천 옹진]		관악산 (‘69.11, 운영) (‘16.10, 교체) [경기 과천]	
광덕산 (‘03.12, 운영) (‘17.09, 교체) [강원 화천]		강릉 (‘10.03, 운영) (‘19.11, 교체) [강원 강릉]	
면봉산 (‘04.12, 운영) (‘15.11, 교체) [경북 청송]		구덕산 (‘90.12, 운영) (‘16.09, 교체) [부산 서구]	
오성산 (‘92.02, 운영) (‘18.09, 교체) [전북 군산]		진도 (‘01.08, 운영) (‘15.11, 교체) [전남 진도]	
고산 (‘90.12, 운영) (‘17.09, 교체) [제주시]		성산 (‘06.07, 운영) (‘18.09, 교체) [제주 서귀포]	
용인 테스트베드 (‘14.08, 운영) [경기 용인]			

② (기후부) 대형레이더관측소(7기) 및 테스트베드(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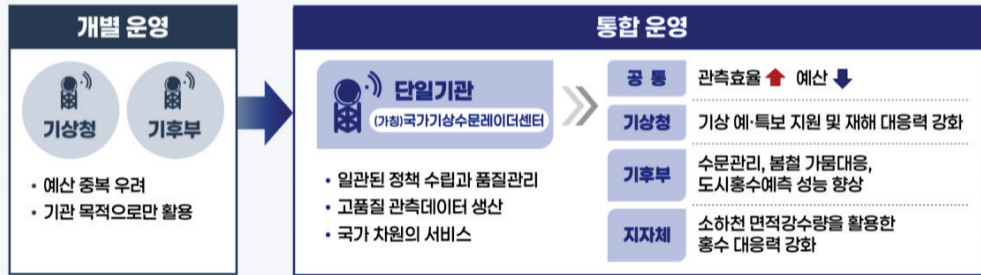
비슬산 (‘09.06, 운영) [경북 청도]		소백산 (‘11.11, 운영) [충북 단양]	
모후산 (‘15.12, 운영) [전남 화순]		서대산 (‘15.1, 운영) [충남 금산]	
가리산 (‘16.03, 운영) [강원 홍천]		예봉산 (‘19.06, 운영) [경기 남양주]	
감악산 (‘22.06, 운영) [경기 파주]		임진강 테스트베드 (‘24.10, 운영) [인천 강화]	

③ (기후부) 소형레이더관측소(9기)

삼척 (‘19.08, 운영) [강원 삼척]		울진 (‘19.08, 운영) [경북 울진]		울산 (‘24.06, 운영) [울산 울주군]	
부산 (‘25.2, 운영) [부산 기장군]		광주 (‘24년 준공) [광주 북구]		전주 (‘24년 준공) [전북 전주]	
부산EDC (‘25년 이란) [부산 강서]		세종 (‘25년 설치 완료) [세종 중흥리]		대전 (‘25년 설치 완료) [대전 장동]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 개요 및 기대효과

- ☑ 기후부 소관 강우레이더의 설치·운영·관리 기능을 기상청으로 이관하여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단일 체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난 대응 및 예산 집행 효율성 극대화



☐ 레이더 통합 운영 개요

구분	기존 (이원화)	개선 (통합)
설치·운영 주체	기후부-기상청 이원화	기상청 일원화
예보 활용	기상	해안 중심의 관측 정보 활용
	홍수	강우상황 중심 활용
기후부 레이더	활용기간	자연재해대책기간(5.15.~10.15.)
	관측대상	강수
	관측범위	저고도(1개) 단일 관측, 하천 유역 중심
	인력운영	시설·장비 관리 중심 운영
		- 기상청 일원화 - 내륙 관측 확대로 정확도 향상 - 강우 선행 정보 확보·활용 - 연중 - 강수 + 강설, 우박, 바람 등 - 전 고도(9개) 입체 관측, 전국 육상 및 연근해상 - 기술 중심 전문인력 양성 강화

- ☞ **(운영주체)** 축적된 레이더 운영 경험 및 활용기술을 고려해 기상청에서 통합 운영, 기상 및 홍수예보에 필요한 레이더자료 일괄 생산
- ☞ **(운영방식)** 연중(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홍수·기상재해 대응 연속성 유지, 레이더로 관측·분석 가능한 모든 기상요소의 실시간 감시·활용
- ☞ **(정보제공)** 맞춤형 레이더 강수량 자료 제공으로 홍수기 홍수 예·경보 지원

〈 레이더 통합 운영 업무 프로세스 〉



□ 레이더 통합 운영 기대효과

- ▶ **(운영효율화)** 장비구매·유지보수 일원화 및 성능 최적화 기술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레이더 유지관리비용 효율화

- 유지관리 안정화 및 성능 최적화로 강우레이더 내용연수 연장: 10→15년
- 동일기종 장비도입·국산부품활용·운영비 174억 예산 절감 예상(5년간, 총 18기* 기준)

〈 5년간 예상되는 예산절감 효과 〉 * 기후부 대형 7기, 기상청 대형 11기

구 분	예산절감액	비 고
동일기종 장비도입	27억원	기후부-기상청 레이더 구매가 차액(1대당 11.5억원) → 11.5억원 × 7대(기후부) = 80.5억원(15년 기준) / 27억(5년 기준)
국산개발품 적용	97억원	국산 개발품 활용 시, 수입품 대비 차액(1대당 5.4억원) → 5.4억원 × 18대(기후부, 기상청) = 97억원
운영비	50억원	기후부-기상청 연간 운영비 차액(10억원, 기후부 7개소) → 10억원 × 5년 = 50억원
합 계	174억원	

- ▶ **(고품질자료)** 기상청의 축적된 품질관리 및 자료처리 기술을 통해 연중 안정적인 수준의 관측장비 운영 및 고품질 산출물 생산

- 실시간 관측자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자원 관측품질 일괄 감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레이더 상태 및 오차값 실시간 원격 조정, 강수 합성장 반영 여부 결정 등 안정적 자료품질 확보체계* 적용

* 장비 운영상태의 주기적 감시, 분석, 정비를 통한 고품질의 관측자료 생산

- ▶ **(맞춤형정보)** 맞춤형 레이더 강수자료 제공으로 홍수기 홍수 예·경보 지원

- 별도의 품질관리·자료처리 절차를 최소화하고, 즉각 시·홍수예보모형 등에 레이더 강수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료 지원

※ (기상) 고해상도 겨울철 강설정보, 강우 소형레이더를 활용한 고해상도 도시 바람정보

(수문) 바람 정보를 활용한 강수 이동·정체와 상층 강수를 고려, 정확한 수문정보 생산, 겨울철 눈·비 관측을 활용한 봄철 가뭄 대응 등

- ▶ **(전문인력)** 장비운영·기술개발 등의 인력 통합으로 레이더 인력풀의 확장 및 국가 인적자원 양성, 개발역량 집중으로 국가 경쟁력 기반 강화 등 시너지 창출

□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공동·통합 운영, 일본은 이원화 운영

〈 해외 사례 〉

- ☑ (미국기상청) 해양대기청, 연방항공청 등의 160여개 레이더 공동운영
 - ☞ (활 용) ①기상·항공안전 등 기상 및 방재업무 / ②하천홍수예보 활용
 - ☞ (효과성) ①부품, 유지보수 공동조달로 연간 수천만 달러 절감
 - ②단일기준 통일로 자료품질 균질화, 동일 규격 성능개선 효율 극대화
- (프랑스·독일·영국·중국 등) 기상청 주도 통합 운영, 기상·수문·항공 등 다부처 자료 활용
- (일본) 기상과 수문 분야로 이원화 운영

국가	운영방식	운영주체	활용	관측망(레이더 대수)
미국	공동 운영	기상청 국가레이더운영센터 ※ (공동운영) 해양대기청, 연방항공청 등	- 기상, 항공 안전, 국방 등 국가적인 기상 및 방재 업무에 활용 - 하천홍수예보 활용	대형 160대
프랑스	통합 운영	프랑스기상청	- 기상예보, 재해 감시 - 수자원 관리 및 댐 운영 활용	대형 40대
독일	통합 운영	독일기상청	- 기상예보, 기상연구, 재해 감시 - 홍수경보시스템 활용	대형 18대
영국	통합 운영	영국기상청	- 기상예보, 재해 감시 - 홍수예보 및 경보 활용	대형 15대
스위스	통합 운영	스위스기상청	- 기상예보, 재해 감시 - 수자원 관리 활용	대형 5대
중국	통합 운영	중국기상국	- 기상관측 및 재해 관리 - 수자원 관리 및 댐 운영 활용	대형 240대
일본	이원화 운영	일본기상청 국토교통성	- (기상청) 전국 단위 기상예보 및 재 해경보 - (국토교통성) 수자원 관리 및 댐 운 영 활용	(기상청) 중형 20대, 항공 9대 (국토교통성) 중형 26대, 소형 39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기후부 수자원정책관, 취·양수장 실무협의체 정례회의 주재
통합 개선·인허가 신속 지원 등으로 사업 속도 제고 및 비용 효율화 추진

“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
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
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 (기후부) 2026년 예산 470억원, 이월예산 170억원, (농식품부) 2026년
예산 24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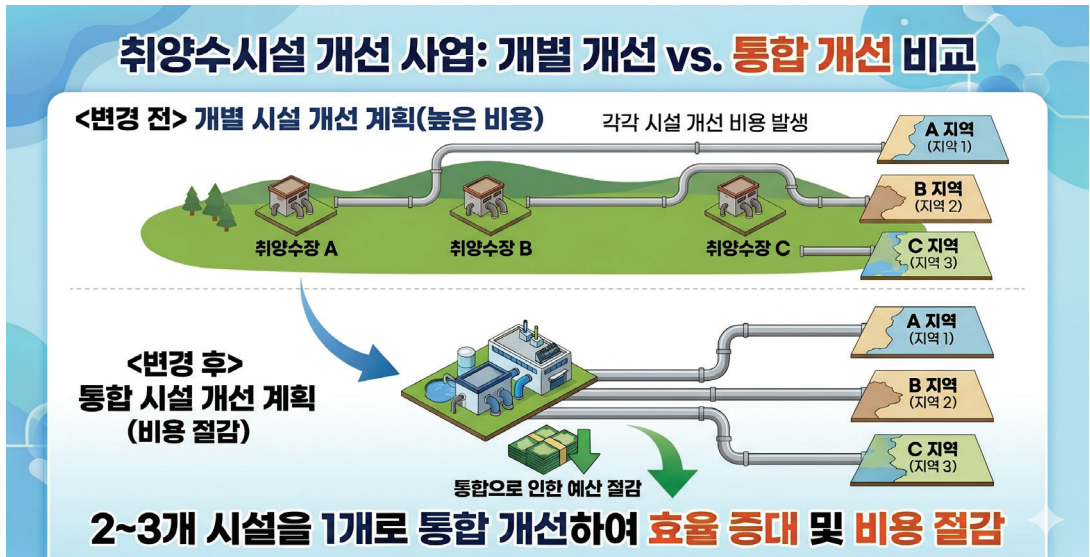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
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
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
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
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
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 기후부·농식품부 소관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대 상	171	12	128	6	25
완 료	15	-	3	6	6
진행 중	156	12	125	-	19

〈 취·양수장의 개별 개선과 통합 개선 비교 모식도 〉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공동으로 주재하며, 양 부처 소관 취·양수장 시설개선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2개 이상의 취·양수장이 인접한 경우, 하나의 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가물막이 설치 등 하천공사를 최소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기후부는 신속한 착공을 위해 하천점용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취·양수장 개선 경험 및 새로운 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수장 시설개선은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기술 지원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DPA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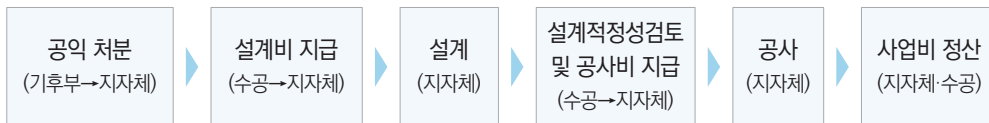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 개요(기후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발생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거나 녹조 발생에도 취·양수 제약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안정적 물이용 기반 마련

□ **(사업개요)** 지자체·수자원공사가 관리중인 취·양수 시설중 물이용 제약이 예상되는 시설의 취수구(위치조정, 신설·이설 등)를 개선중(21~)

- ▶ **(지원대상)** 70개소(지자체 취·양수장 69개소, 수자원공사 취수장 1개소)
- ▶ **(시행주체)** 기후부(총괄, 예산교부), 수공(사업비검토 등), 지자체(사업시행)
- ▶ **(시행방법)** 위탁사업(수자원공사) ※ (근거) 하천법 제77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 취·양수장 개선 사업 추진절차(기후부 소관) 〉



- ▶ **(지원비율)** 하천법(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국고 100%
 - 국가는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지자체에 시설개선을 명령(공익처분)하고, 제77조에 따라 처분에 따른 손실(개선비용)을 국고 100%로 지원 중

□ **(추진현황)** '26.4월 기준 4개소 개선완료(세종 양화취, 합천 대부양·중적포양·외삼학양)

- ▶ **('26년 예산)** 470억원으로 48개소에 투자 중(한강 7, 낙동강 37, 영산강 4)
- ▶ **(이월 예산)** 잔여 170억원, 11개소에 투자 중(낙동강 5, 영산강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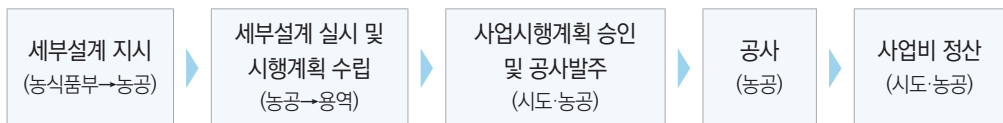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개요(농식품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발생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안정적 물이용 기반 마련

□ **(사업개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중인 양수장 시설 중 농업용수 공급에 제약이 예상되는 시설의 취수구(위치조정, 신설·이설 등)를 개선 중(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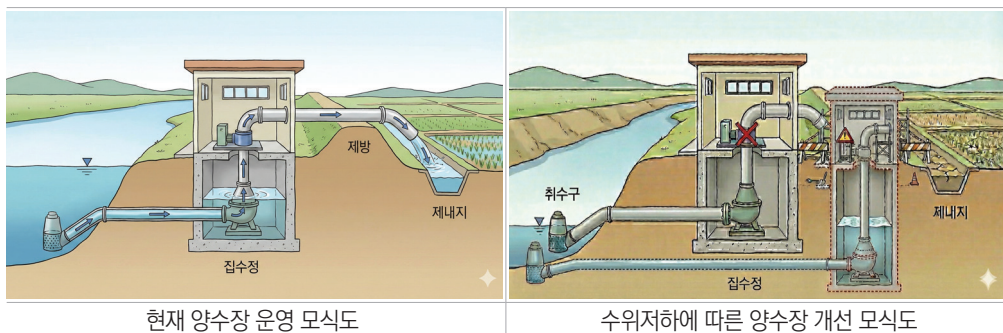
- ▶ **(지원대상)** 101개소(농어촌공사 관리 양수장 101개소)
- ▶ **(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 ▶ **(지원비율)** 국고 100%
- ▶ **(주요절차)** 시설관리자(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고 양수장 시설개선 추진

〈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절차 〉



□ **(추진현황)** '26.4월 기준 11개소 시설개선 완료(금강 5, 영산강 6)

- ▶ **('26년 예산)** 246억원으로 90개소 추진 중



[브리핑 & 뉴스]

지자체뉴스

- 01 | 서울시, 전국 최초 지하철도 통제 정보, 내비게이션 실시간 안내... 집중호우 전 안전성 확보
- 02 | 시민 안전 최우선... 부산시, 여름철 대비 재해우려사업장 현장점검
- 03 | 인천시,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노후·고위험 시설 784개소 집중안전점검
- 04 | 대전시, 시민 안전 최우선... 풍수해 대비 현장 점검 실시
- 05 |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 재난 대응 체계 강화
- 06 | 경기도, 모바일 메신저 활용 ‘산불재난 대응’ 모의훈련 실시
- 07 | 경상북도, 해빙기 산사태 예방 총력...현장점검반 가동
- 08 | 전북자치도, 지난 밤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확대
- 09 | 충청남도,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총력

Together for
Safe Korea

서울시, 전국 최초 지하차도 통제 정보, 내비게이션 실시간 안내... 집중호우 전 안전성 확보

서울시·행안부·경찰청·내비게이션사 협업... 전국 최초 지하차도 통제정보 실시간 안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연계, 차단 즉시 통제정보와 우회 경로를 내비게이션에 반영
시 관리 지하차도 73개소 우선 시행 후, 자치구 관리 22개소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지하차도 진입 전 우회경로 안내해 2차 사고 예방하고, 교통 혼잡 해소 효과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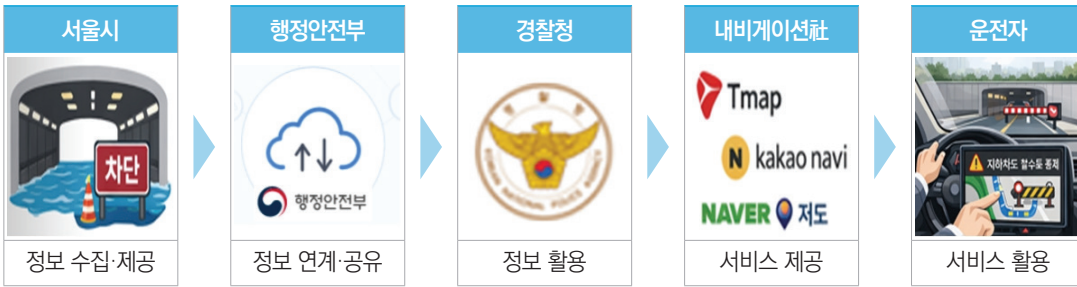
“5월부터는 실시간 지하차도 통제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확인하고
위험 구간을 우회할 수 있게 된다.
집중호우 시에도
차량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5월부터는 서울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 등으로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정보와 우회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
력해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 73개소의 통제정
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
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서울 시내 지하차도 95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8년이나 앞당긴 지난해 100% 설치 완료했다.
이와 함께 비상 방송, 전광표지판(VMS) 안내, 현장 담당
자 배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조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다만 집중호우 등으로 '진입 차단시설'이 가동돼 지하차도
가 통제되더라도 운전자들이 사전에 알 방법이 없어, 통제
구간 인근까지 접근한 뒤에야 급하게 경로를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 지하차도 진입 통제 발생 시 정보 연계 흐름도 〉



〈 지하차도 진입 통제 시 내비게이션을 통한 실시간 우회 정보 안내 흐름(안) 〉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함께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 정보 전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하차도 통제정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모드’ 개발 등 지하차도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하차도가 통제되면 서울시가 통제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전송하고, 경찰청과 내비게이션 업체가 이를 연계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안내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제공에는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커넥티드카서비스), 아이나비, 아틀란 등 6개 내비게이션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우기 전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73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자치구가 관리하는 22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운전자는 통제 구간 진입 전 우회 경로를 미리 확인해 침수 위험을 사전에 피할 수 있고, 급작스러운 회차로 인한 2차 사고와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5월부터는 실시간 지하차도 통제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확인하고 위험 구간을 우회할 수 있게 된다”며 “집중호우 시에도 차량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KDPA**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시민 안전 최우선... 부산시, 여름철 대비 재해우려사업장 현장점검

4.13. 14:00 동래사적공원 공동주택 공사장, 수영강 회동지구 국가하천 정비사업장
방문해 시, 구·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우려사업장에 대한 수방대책 추진 상황을 행정부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챙기고, 예측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

시, 인명피해 ZERO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고
구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여름철 자연재난 빈틈없이 대비할 계획

“ 최근 돌발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된
기상여건 속에서, 현장 중심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해소하고,
재해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인명피해 ZERO 달성’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며,
이를 위해 시와 구·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일) 오후 2시 김경덕 시 행
정부시장이 대형공사장(동래사적공원 공동주택 공사장)
과 국가하천 정비사업장(수영강 회동지구)을 방문해 여름
철 자연재난 대비 주요 재해우려사업장을 직접 점검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티에프(TF) 단장을 맡은 김 부시장을 비롯해, 시민안
전실과 현장 소관 부서, 동래구, 금정구, 낙동강유역환경
청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4월 3일 김부시장 주재로 티에
프(TF) 1차(KICK-OFF)회의를 개최하고 올여름 자연재
난 대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재해취약지역 사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지난주 회의에서 부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6대 풍수해 위험유형*'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
정하고 이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부산 안전 ON'을
통한 상황관리와 재난정보 통합제공 △인명피해우려지역
집중발굴 및 중점관리구역 실국장급 책임점검 △재해우
려지역 예방 인프라 확대 △통제·대피기준 재정비 및 주민



올여름 자연재난 대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재해취약지역 사전 대책 논의 모습

대피 실행력 강화 △재해예방 시민참여 확대 등 주요 대책을 논의했다.

* 6대 위험유형: 산사태·사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해안가 월파, 대형 공사장, 강풍·빌딩풍

이번 점검에서 김 부시장은 동래사적공원 공동주택 대형 공사장과 수영강 회동지구 국가하천 정비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우려사업장의 풍수해 예방대책을 직접 살펴본다. 첫 번째 점검지는 동래구 명륜동 산 36번지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사업장으로, 집중호우 시 비탈면을 따라 토사 유실에 대비한 저류조, 침사지, 배수로 및 토사유출 차단막 등을 점검한다. 김 부시장은 현장에서 우기에 대비해 상시 배수로를 점검할 것과 저류조나 침사지가 최근의 극한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수영강 회동지구에서 진행 중인 국가하천 정비사업장을 방문해 하천 우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시는 작년 5월에 동천 관로정비 사업장과 온천5호교 재가설 사업장에서 우기를 대비해 가물막이 등 지장물을 철거한 사례가 있다. 김 부시장은 최근의 국지적 폭우의 경향을 고려할 때 5월까지의 교량 하부 공사를 완료하고 하천 흐름에 방해되는 점용시설물도 철거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은 점검을 마치며 “최근 돌발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된 기상여건 속에서, 현장 중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해소하고, 재해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인명피해 ZERO 달성’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며, 이를 위해 “시와 구·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KDPA**

부산광역시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인천시,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노후·고위험 시설 784개소 집중안전점검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 활용 민관 협력 통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재난관리에서 예방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며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4월 22일 시청 재난영상 회의실에서 군·구, 공사·공단·체육회 등 2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되는 집중안전점검을 앞두고 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생활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활동이다.

2026년 인천시 집중안전점검은 총 784개소의 노후·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지하상가,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드론, 균열 측정기,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시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통해 잠재적·구조적 위험요인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집중안전점검 준비상황 점검회의 모습

또한 대학교, 건축사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점검신청제를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시설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 입력 및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해 점검 실적 관리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등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점검표 배포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재난관리에서 예방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KDPA**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안전협력팀

대전시, 시민 안전 최우선... 풍수해 대비 현장 점검 실시

재해취약지역 선제 점검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강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전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지난 13일 주요 하천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는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시와 자치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등천, 갑천, 대동천 일대를 중심으로 △하천 제방 상태 △배수시설 관리 실태 △하천 내 장애물 및 시설물 안전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하천 수위 상승에 대비한 배수시설 작동 여부와 주민 대피계획을 점검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우기 전까지 추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해취약지역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현장 점검 사진 1〉 주요 하천 현장 점검 실시 모습



〈현장 점검 사진 2〉 재해취약지역 현장 점검 실시 모습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구축부터 예방·대비, 대응, 복구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

산불·풍수해 등 재난 대비 방재 인프라 확충으로 재해 취약 유산 보호 총력

- 2026년 방재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사업, 안전경비원 등 9개 사업 77억 원 투자

“국가유산은 훼손 시
원형 복원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이 핵심이며,
일상관리와 재난 대응 체계를
균형 있게 운영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내 국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부터 대응, 복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스템 구축 〉

도는 재난 취약 국가유산 36개소에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소방 설비 등 방재시스템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기존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208개소에 9억 원을 투입해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훼손에 선제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소방 및 방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방재시스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9개소, 도지정

〈 국가유산 재난대응 체계 〉

구분	구축	예방·대비	대응	복구
내용	방재시스템 구축·유지 재난 취약 국가유산 소화 및 경보설비 및 시설 등 구축·유지관리	국가유산 돌봄사업 - 모니터링, 일상관리 안전 경비원 배치 24시간 밀착감시 사계절 안전점검 - 국·도·시군 합동점검	국가유산 돌봄사업 -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 지역 긴급조사 - 방수·방염포 설치 등 응급 조치	긴급보수·복구 2차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복구 추진

문화유산 27개소에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103개소, 도지정문화유산 105개소에 대해 기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 예방·대비 → 대응 → 복구 〉

국가유산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국가유산 돌봄사업, 안전경비원 배치 및 사계절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 돌봄사업은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내 강원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23억 원을 투입해 도내 국가유산 599개소를 3개 권역(9개팀, 영서2·영동4·남부3)으로 나누어 상시 모니터링과 일상관리, 경미수리를 수행하고 있다.

※ 2025년 추진 실적 : 총 11,215회(경미수리467,상시관리8,103,모니터링2,645)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은 도내 중요 국가유산 9개소*에 30명을 배치하며 10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밀착 감시, 재난 예방, 재난 시 초기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9개소 : 강릉 경포대 등 5개소, 삼척 죽서루, 고성 왕곡마을, 평창 적멸보궁, 양양 낙산사

사계절 안전점검은 해빙기(겨울), 풍수해(여름), 산불(봄·가을) 취약 시기에 국가유산청·도·시군 담당자와 방재설비 등을 점검하며, 안전경비원 및 시군 담당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에는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통해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 조사와 방염·방수포 설치 등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보수와 복구 지원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연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장은 “국가유산은 훼손 시 원형 복원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이 핵심”이라며, “일상관리와 재난 대응 체계를 균형 있게 운영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ی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2026년 국가유산 재난분야 사업현황

분야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대상	주요내용
합계		7,755	9개 사업	구축 36, 유지관리 208, 상시관리 608
구축	소계	3,516	3개사업	구축 36개소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1,420	국가지정유산 (8개소)	• 중요 국가지정유산 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 방지 시설 구축 - 경보·방범·소화, 전기(ICT) 재난방지시설 설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400	전통사찰 (1개소)	• 방재시스템 구축 -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지능형분전반, 아크 경보기, 통신형 누전차단기)
	목조문화유산 화재 자동 감지·진화 시스템 구축	1,696	도지정유산 (27개소)	• 도지정 목조문화유산 화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유지 관리	소계	940	4개사업	유지관리 208개소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349	국가지정유산 (69개소)	• 중요 국가지정유산 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방지 시설 유지관리 - 시설관리 용역비, 수리비, 통신·전기요금 - 방염포 구입비 지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409	전통사찰 (34개소)	• 방재시스템 구축 완료 시설의 유지관리
	IoT기반 문화유산 안전 관리시스템	96	도지정유산 (87개소)	• 도지정 목조·석조·성곽 문화유산 유지관리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상황실) 운영
	목조문화유산 화재 자동 감지·진화 시스템 유지관리	86	도지정유산 (18개소)	• 도지정 목조문화유산 화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상시 관리	소계	3,299	2개사업	상시관리 608개소
	국가유산 돌봄사업	2,250	국가지정유산 (599개소)	• 국가유산 훼손 사전 예방, 경미수리, 상시 모니터링 등 필요한 경비 지원 - 경미수리 : 기와, 담장, 창호, 벽체 등 *수행: 강원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1,049	국가지정유산 (9개소/30명)	• 중요 국가유산 일상관리를 위한 안전경비원 배치

경기도, 모바일 메신저 활용 ‘산불재난 대응’ 모의훈련 실시

29일 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상황 대응 모의훈련 추진... 재난 대비태세 강화
복합 사회재난 대비 모바일 대응체계 가동, 첫 순서로 ‘산불 대응’ 추진
경기 지역 특성 반영한 ‘진화’와 ‘대피’ 골든타임 확보 및 부서 간 협업체계 점검

“재난 초기 대응의 성패는
평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부서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는데 달려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복합 재난에도 즉각 대응하는
‘실질적인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는 29일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활용한 산불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바일 기반의 재난 대응 훈련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실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기동성 있는 소통 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2026년 4월 현재까지 73건의 산불이 발생해, 같은 기간 전국 산불 발생 건수 315건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산불 발생 여건을 감안해,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공유와 부서 간 협업체계가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훈련을 추진했다.

특히 경기도는 산림 면적이 좁고 산림과 도심·시설이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산불 발생 시 ‘진화’와 ‘대피’의 골든타임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전 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정립된 주민대피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살필 계획이다.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활용한 산불 대응 모의훈련

훈련 시나리오는 급격한 산불 확산과 산림 고립형 요양시설의 위기 상황을 가정했다. 신속한 산불 진화와 취약시설 대피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실천과 같이 가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훈련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산림복지과, 사회재난과, 정신건강과, 소방재난본부 등 7개 부서 관계자 15명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재난문자(CBS) 송출 △사회재난부서(대피)와 산림부서(진화) 간 정보 공유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적 대피 및 이송 수단 확보 △대피시설 선정 및 이재민 구호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이다.

도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풍수해, 화재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유형별 시나리오를 지속 개발해 다양한 재난에 즉각 가동될 수 있는 '모바일 공조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 초기 대응의 성패는 평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부서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는데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복합 재난에도 즉각 대응하는 ‘실질적인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회재난과

경상북도, 해빙기 산사태 예방 총력...현장점검반 가동

산사태 취약지역·사방시설 등 6,585개소 집중 점검...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도·시군 합동 대규모 점검 체계 구축, 여름철 우기 전 대비 태세 완료

“해빙기는 지반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낙석이나 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여름철 우기 전 완벽한 대비 체계를 갖추겠다. 도민들께서도 집 주변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경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현장 점검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주관으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및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3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된 '2026년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을 총괄로 한 5개 점검반과 시·군별 자체점검반을 포함, 총 316명의 대규모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점검반은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전역을 직접 방문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전 사전 준비 실태를 면밀히 살핀다.

주요 점검사항은 △산사태 취약지역·대피소 관리 현황,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상황, △사방사업 추진상황 등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로 구성됐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전 사전 준비 실태 점검 모습

또한, 경북도는 점검 과정에서 제도 개선 건의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도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순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해빙기는 지반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낙석이나 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여름철 우기 전 완벽한 대비 체계를 갖추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집 주변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DPA**

경상북도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전북자치도, 지난 밤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확대

20일 밤사이 황사 유입으로 권역별 주의보 확대

일부 지역 주의보 해제되었지만, 황사 영향 지속에 따른 주의 필요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어린이·노약자·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등
민감계층뿐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차량 운행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밤부터 21일 새벽 사이, 국
외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도내 미세먼지(PM-10)
농도가 상승하여 전 권역에 주의보가 순차적으로 발령됐
다고 밝혔다.

미세먼지(PM-10) 주의보는 시간당 권역별 평균 농도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앞서 20일
20시 기준 서부권역(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에 미세먼
지(PM-10)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21시에는 중부권
역(전주·익산·완주)으로 주의보가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 중 이다.

또한 동부권역(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21일
00시를 기해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이후 06시 기준으로 농도가 96 $\mu\text{g}/\text{m}^3$ 으로 감소하여 해
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황사 영향권 내에 있어 기류 변
화에 따라 농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
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주의보는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
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국내로 유입되면서 발령된 것
으로 분석된다. 이번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22일)까지 높
은 농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발령 현황 〉

권역별 항목		20일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1일 0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서부권	미세먼지 (PM-10)	191	233	245	247	227	202	188	177	171	162	152	145
중부권	미세먼지 (PM-10)	121	173	185	205	204	189	179	165	158	151	145	136
동부권	미세먼지 (PM-10)	65	80	115	145	167	156	140	129	119	107	103	96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어린이·노약자·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등 민감계층뿐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차량 운행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대기질 변화는 기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를 통해 발표되는 예보와 기상정보 등을 참고하고 향후 데이터 추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KDPA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http://air.jeonbuk.go.kr>)을 통해 대기환경정보 확인과 예·경보 상황을 알람톡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분석과

충청남도,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총력

도, 인명피해 '제로(0)' 목표 시군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강화

“기후변화로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 예방이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충청남도와 시군이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0) 목표 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3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양승찬 도 자치안전실장 주재로 도·시군 재난 담당 공무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해(풍수해) 사전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해 시군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의 핵심 목표를 '인명보호 최우선, 인명피해 제로화'로 설정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재난현장상황관리관 사전 파견 △하천별 침수위험지역 통제 및 대피체계 구축 △충남 안전파트너 운영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극한호우에 대비해서는 기존 인명피해 우려지역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굴한 하천별 침수위험지역까지 포함해 통제 및 주민대피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여름철 자연재해(풍수해) 사전대비 대책회의 모습

이와 함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640곳을 점검하고,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안전파트너와 1대 1 매칭을 실시하고, 마을대피소 점검 및 주민 참여형 대피훈련인 1마을 1훈련도 추진한다.

도는 시군과 5월 초까지 사전대비 추진실태 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5월 중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양승찬 자치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 예방"이라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PA**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브리핑 & 뉴스]

회원사뉴스

- 01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반시설 관리, '드론'으로!
- 02 | 한국수자원공사, 기후위기 대응부터 현장 안전까지...
미래혁신기술의물관리 적용 방향 논의



Together for
Safe Korea



한국농어촌공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반시설 관리, ‘드론’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분야 드론 운용단 출범식’ 개최

“드론 운용단 출범은
수자원 관리체계를 지능형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술 혁신을 통해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 나가겠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드론’을 활용해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공사는 전남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과 드론 운용단 단
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자원관리분야 드론 운용
단 출범식’과 ‘드론 활용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
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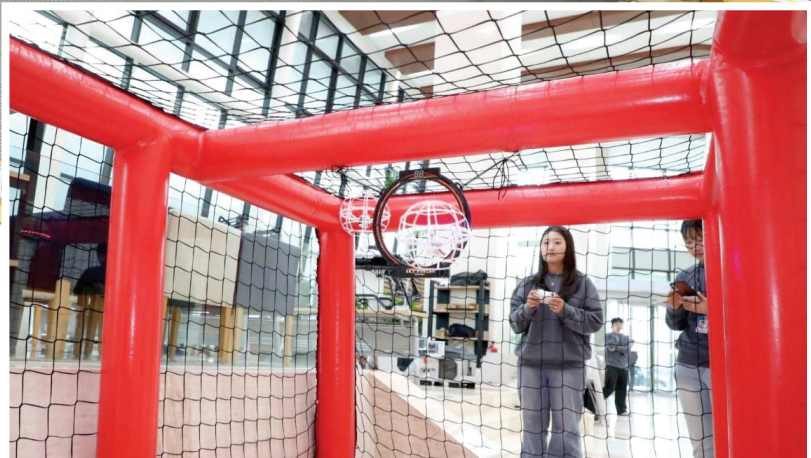
이날 출범식에서는 농업기반시설에서의 드론 활용 전략
과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논
의했다. 이어 열린 경진 대회에서는 각 지역본부를 대표하
는 드론 운용단 단원들이 정밀 비행과 목표물 촬영 등 다
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조종 역량을 높였다.

현장 안전과 업무 효율, ‘드론’으로 잡는다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하며 현장 안전의 중요성이 커진 데
다, 관리 대상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면서 관행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론이 대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에 위험하
거나 까다로운 지역에서도 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탐사해 업무를 신속히 처
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과 드론 운용단 단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자원관리분야 드론 운용단 출범식'과 '드론 활용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현장에 드론이 정착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93개 지사에 드론 153대를 보급해 물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드론 운용단을 출범하며 인적 기반까지 갖추게 됐다. 드론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운용단은 앞으로 1만 4천여 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검하는 등 드론 활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게 된다.

공사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향후 인공지능 영상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기반시설 관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드론 운용단 출범은 수자원 관리체계를 지능형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술 혁신을 통해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DPA**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 용수관리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후위기 대응부터 현장 안전까지… 미래혁신기술의 물관리 적용 방향 논의

28일 공공·민간 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 물관리 분야 미래혁신기술 도입 안정성 및
개선 방향 등 집중 논의

로봇·무인기 등 현장 맞춤형 과제 추진 현황 공유, 공공·민간 협력으로 실증 방향 구체화

“이번 포럼은 공공과 민간,
연구와 산업이 함께
물관리 현장에 적용 가능한
미래혁신기술의 방향과 보완 과제를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현장 수요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피지컬 AI 과제별 실효성과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4월 28일 대
전 본사에서 공공 및 민간의 피지컬 AI(Physical AI)* 분
야 전문가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혁신기술 포럼’
을 개최했다.

* 로봇, 제조, 건설 등 현실 세계에서 감지장치와 구동장치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이 인지·판단·제어를 수행하는 기술

이번 포럼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물관리 불확실성에 대
응하고 물관리 현장의 안전관리와 운영 고도화를 위한 피
지컬 AI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보완
필요 사항도 사전에 점검했다.

포럼에서는 먼저 민간기업들이 양자 AI 기반 수요예측 기
술, 산업 시설 감시용 AI 로봇 등 미래혁신기술의 적용 사
례와 현장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의 구현 방식과 운영 여건을 살펴보고 물관리 분
야에 접목할 때 고려할 사항을 확인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현장에 적용을 검토 중인
주요 과제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과제는 △ 위험



4월 28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미래혁신기술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일곱 번째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부장)

작업에 피지컬 AI 로봇을 활용한 안전 점검 체계 구축 △
여과지 자율주행, 정밀 조사, 이상 징후 판별 등을 수행하
는 현장형 AI 체계 △ AI 무인기를 활용한 실시간 녹조 탐
지 기술 △ 피지컬 AI 기반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관리 체
계 구축 등이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기업
과 전문가들의 선행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중인 주요
과제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예상 제약요인을 점검했다. 참
석자들은 과제별 보완 필요 사항과 실증 시 고려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기술의 현장 적합성, 안전성, 운영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지
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현장부서의 운영 경험과 기업의
기술 전문성을 연계할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준에 적용을 검토 중인 피지컬 AI 과제의 기술 운영상

보완 사항을 반영해 현장 적용 기반을 고도화하고 물관리
현장에 추가로 적용 가능한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
갈 계획이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장은 “이번 포럼
은 공공과 민간, 연구와 산업이 함께 물관리 현장에 적용
가능한 미래혁신기술의 방향과 보완 과제를 구체화하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와 실증 결과를 바탕
으로 피지컬 AI 과제별 실효성과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DPA**

한국수자원공사 기후테크혁신처 AI융합사업팀



[브리핑 & 뉴스]

해외뉴스

01 | 일본, 2025년 토사재해 발생 건수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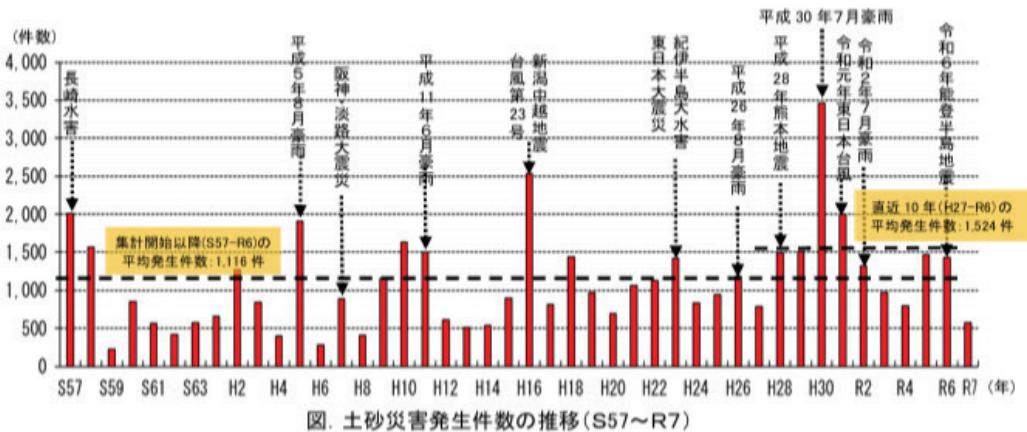


Together for
Safe Korea



일본, 2025년 토사재해 발생 건수 공표

2025년은 다양한 현상 영향으로 토사재해 발생



2025년에는 37개 도도현에서 578건의 토사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주택 피해 241동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토사재해: 산사태, 토석류, 땅밀림 등을 포함, 단, 화재류는 제외

발생 건수 측면에서는, 장마철의 적은 강우 영향으로 통계 집계 개시 이후(1982~2024)의 평균 발생 건수(1,116건)를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8월 6일부터 발생한 폭우 피해 외에도, 화산 분화 및 산림 화재 이후 황폐화된 지역의 토사 유출피해 등, 다양한 현상의 영향으로 토사재해가 발생하였다.

2025년 6월, 7년 만에 분화한 기리시마산(신모에다케)에서는, 분화 이후인 7월 10일에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의 기리시마강(霧島川)에서 토사재해가 발생하였다. 화산 분화 이후 황폐화된 유역에서 동일 연도에 토사 유출 피해

사례로는, 2000년 도쿄도 미야케무라(三宅村) 이후 최초이다.

또한 3월에 1964년 이후 최대 규모의 산림 화재가 발생한 이와테현 오후나토시(岩手県大船渡市)에서는 11월 1일,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1건)가 발생하였다. 산림 화재 이후 황폐화된 유역에서 동일 연도에 토사 유출 피해 사례로는 1993년 고치현 가미시 모노베초 이후 최초이다.

KDPA

수관리·국토보전국 사방부 보전과

디지털 기반 재난 피해복구 의사결정지원 플랫폼 연구개발과 방재 분야 적용 방향

“

최근 재난관리 정책은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회복력 기반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재난복구 단계에서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



홍재주

(주)맵인어스
도시공간환경연구소 이사

1. 배경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재난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재난관리의 초점은 단순한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재난 이전 정밀한 예측을 위한 ‘예측기반 관리체계’와 재난발생 이후 지역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회복력(Resilience)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예측기반 기술은 변화하는 재난유형과 양상을 모두 담기에 어려움이 있고, 재난 피해복구 단계는 재난관리 전주기 중에서도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중앙정부 주도의 물리적 현상복구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회복과 관련된 복구과정에서는 피해현장조사 자료 수집 입력, 2차원 도면 기반의 복구계획 수립, 제한적인 단가 정보 활용 등으로 복구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복구 기간 지연 및 비용 산정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적용이 미흡한 재난 회복력 개념은 재난의 영향을 저항·흡수·적응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복구개념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예측, 그리고 다양한 복구 대안 비교를 통해 강화될 수 있으나, 이에 적합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정안전부 「디지털 기반의 재난회복력(resilience) 증진을 위한 복구지원체계 개발(행정안전부, RS-2023-00248092)」 과제를 기반으로 GIS, 3차원 모델링, 시뮬레이션, 데이터 통합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재난 피해복구 체계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연구단이 총괄 수행하고, 맵인어스가 디지털 기반 재난 피해복구 의사결정지원 플랫폼의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하여 개선방향을 정립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은 재난 피해복구 전 과정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복구 시나리오 생성, 3차원 기반 시각화, 복구 비용 산정 자동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기존 경험적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복구 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기반 재난 피해복구 체계는 방재협회와 같은 전문기관의 역할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방재 분야 전문기관은 재난 피해복구 기술의 표준화, 공법 적용성 검증, 정책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기반 재난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본 기고에서는 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재난 피해복구 의사결정지원 플랫폼의 개발 개념과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방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현행 재난 피해복구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재난 피해복구 업무체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를 중심으로 구조화 되고 있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재해 대장 작성, 복구공법 적용, 복구비 산정 등 주요 단계별 업무가 일정 수준 체계화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중심 운영관점에서 보면 복구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피해조사 및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높다. 현행 업무체계에서는 피해조사 자료가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표준화되지 않는 일부내용만을 중심으로 입력되고 있으며, 위치도 및 도면 작성 또한 별도의 프로그램(PPT 등)을 활용한 수작업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업무의 반복성과 자료관리 비효율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는 재난 피해복구과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복구과정에 주요한 의사결정 정보가 통합관리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복구공법 및 단가 산정 체계의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복구비 산정은 행정안전부 편람 단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현장 조건이나 신기술 적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편람에 포함되지 않은 공법의 경우, 지자체가 별도로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복구계획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단가 산정시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어 적절한 복구계획 수립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복구공법 적용을 위한 기술정보 및 설계자료의 부족 문제이다. 복구공법 및 복구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검토하는 주체는 지자체 행정부서의 공무원으로 다양한 분야에 전문기술과 내용을 모두 알기에 어렵고, 순환보직에 따른 자리이동시 업무파악이 어려워 기존정보를 변경 없이 답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기존 재난 피해복구 업무에서는 2D CAD 기반의 제한적인 단면도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검토, 적용하기 어렵고, 재난안전신기술과 기존 공법 간 연계 정보가 부족하여, 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넷째,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재난 피해복구에 필요한 기상, 지형, 지질, 피해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가 다양한 부처에 산재된 개별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다. 실제로 복구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수의 Open API 및 외부 플랫폼에 존재하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구조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복구 의사결정 방식 자체의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의 피해복구는 단일 공법 또는 경험 기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복구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체계가 부족하다. 이에 최적 복구 시나리오 도출이 어렵고 복구 비용 및 효과에 대한 정량적 검증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은 피해복구를 단순한 행정절차 중심업무로 머물게 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피해복구 전 과정에 걸쳐 데이터 통합, 시뮬레이션, 시각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3. 디지털 기반 피해복구 의사결정지원 플랫폼 개발 개념

앞서 제시한 현행 재난 피해복구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기능 개선 수준이 아닌 재난 피해복구 전 과정에 걸친 의사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

하다. 이에 본 과제의 공동기관인 맵인어스는 데이터 기반 분석과 시뮬레이션, 시각화 기술 등을 통합한 디지털 기반 재난피해복구 의사결정지원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본 플랫폼은 재난 피해복구 업무를 “데이터 수집→적용가능기술 제안→시나리오 생성→의사결정”의 단계로 재구성하고, 각 단계 간의 기능적 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 구조로 설계 개발되었다. 특히 기존의 개별 시스템 중심 업무 수행 방식에서 복구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3.1 플랫폼 구조 개념

플랫폼은 크게 현황정보 관리, 복구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의 3대 기능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현황정보 관리 영역은 피해지역의 피해현장조사 내용, 재난 관련 타 기관 연계 공간정보, 재난 피해복구 기술 정보, 시계열 환경정보(기상, 바람장, 화재, 지진이력 등)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복구 의사결정의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역할 담당한다. 이는 기존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재난 관련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화·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둘째, 복구 시뮬레이션 영역은 피해시설물에 대한 복구공법을 피해지역의 조건을 기반으로 자동 우선 추천하고 다양한 복구 대안을 생성·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피해시설물 등록, 복구기술 설정, 3차원 조감도면 생성, 복구비 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경험적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의사결정으로 전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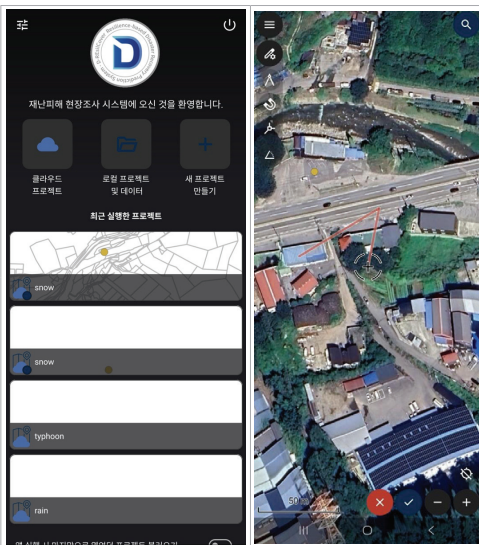
셋째, 데이터 관리 영역은 피해지역 DB, 복구공법 DB, 단가 DB, 시나리오 DB 등 복구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데

이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조달청 단가정보, 재난안전신기술 정보, 기상 및 환경 데이터 등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여, 복구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현실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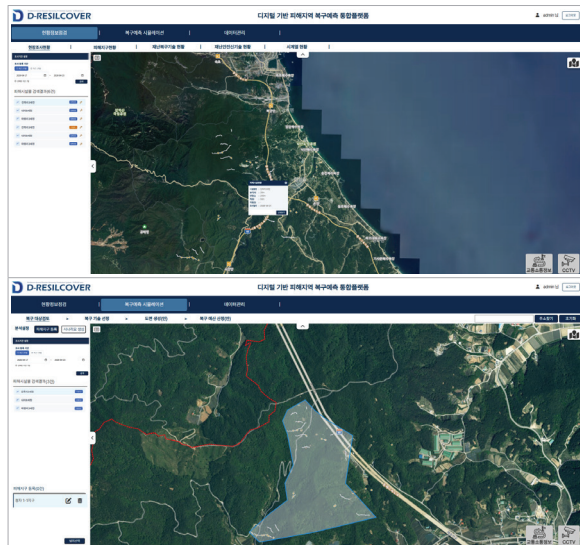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설계된 플랫폼 구조는 기존에 단절된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재난 피해 복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기반을 제공한다.

3.2 피해현장조사 자료 관리 표준화 구조

현재 피해가 발생될 경우 피해현장조사를 개별 지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관련 조사양식이 표준화 되지 않고 조사자가 수기로 작성하여 내역을 수행하는 상황이며, NDMS에 입력되는 항목 또한 다양한 피해지역 특성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피해 현장조사를 표준화된 항목과 내업작업의 최소화 및 현장조사와 내업자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지원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연구단에서는 현장



피해복구 현장조사 앱 화면(QField 오픈 소스기반 앱 개발)



피해복구 정보 연계 플랫폼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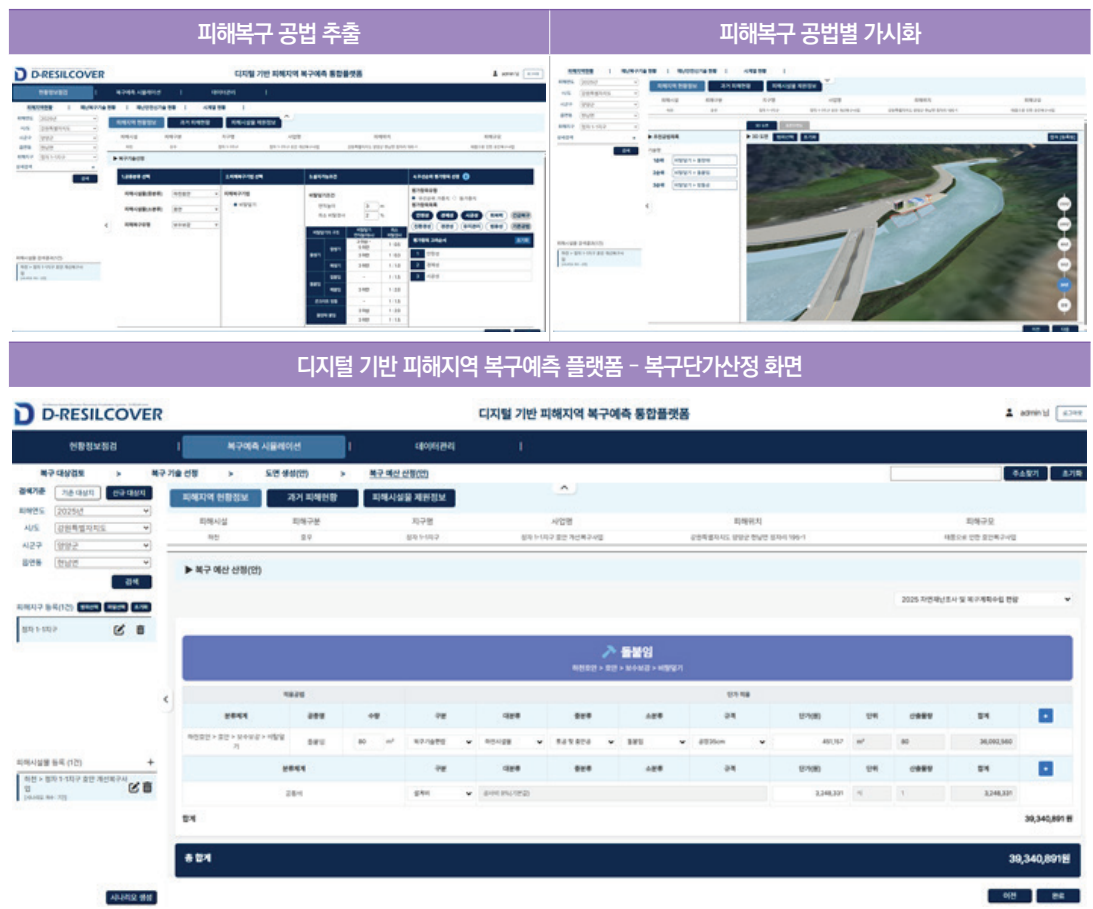
피해복구 사진 편집 Tool

조사 앱 개발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을 병행하고 있다. 첫째는 재난 피해복구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자체 현장조사 앱을 공동연구기관인 서호플러스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둘째는 오픈소스 기반의 QGIS와의 연계가 가능한 QField(QField cloud-오픈소스)를 활용한 서비스 구조를 구축하였다. 조사자의 피해시설물의 위치, 피해유형, 규모, 사진, 지역상황, 음성정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입력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와 연계되어 즉시 통합플랫폼에 반영하게 하였다. QField 기반 방식은 범용 오픈소스의 확장성과 즉시 적용 가능성의 강점이 있다면, 자체개발 앱은 피해복구 업무 프로세스에 특화된 설계 및 통합플랫폼과의 긴밀한 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두 방식의 개발 성과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존의 수작업 기반 조사 방식과 달리, 공간정보 기반 입력과 사진·도면 정보의 동시 수집이 가능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외업)와 복구계획 수립(내업)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내업작업시 피해사진에 피해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진편집 Tool을 사용하거나, PPT로 작성후 NDMS 업로드를 위한 500KB 이내의 이미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플랫폼에서 지원하여 업무 편리성을 지원한다.

3.3 복구 시나리오 기반 의사결정 구조

재난 피해복구에 있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핵심 중 하나는 복구공법 단일 적용이 아닌, 다수의 복구공법 시나리오 생성과 비교·평가하는 구조에 있다.



기존 재난 피해복구는 경험과 원상복구에 기반한 단일 공법 선택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본 플랫폼에서는 피해시설물의 유형과 규모,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복구공법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각 시나리오별 비용, 시공성, 안정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최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4 3차원 기반 시각화 및 설계 지원

기존 재난 피해복구 업무에서는 2차원 도면 중심의 자료 검토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이는 전문가 이외 자료 검토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플랫폼에서는 복구공법을 3차원 모델링 기반으로 구현하고, 이를 실제 피해지역에 적용하여 시각화할 수 있

도록 하여 복구 설계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법 적용 전 사전 검증이 가능하다

3.5 데이터 통합 운영 구조

본 플랫폼은 다양한 데이터의 자동 연계 및 통합을 통해 복구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해지역 현황, 기상 데이터, 지형·지질 정보, 재난이력 정보 등 총 20종 이상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Open API 기반 연계를 통해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복구비 산정에 참조되는 조달청 자료 등을 자동 연계하여 피해복구 업무 기초자료 제공 표준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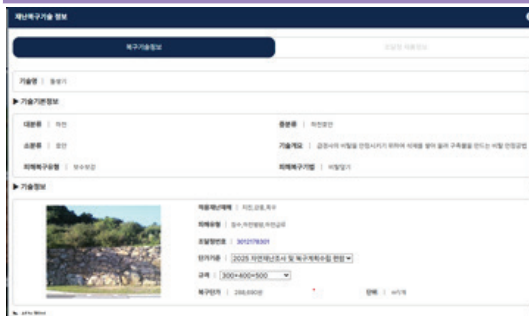
피해지역현황정보 레이어 목록



자료 제공 화면 예시



복구기술 목록 정보



조달청 제품 상세정보



4. 방재분야 활용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재난관리 정책은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회복력 기반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재난복구 단계에서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개발기술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 피해복구의 사결정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피해조사, 복구 시나리오 생성, 비용 산정을 통합지원함으로써 기존 경험중심의 복구방식에서 정량적·객관적 체계로의 전환 기반을 제공한다.

본 플랫폼을 통해 재난 피해복구 기술 확산을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복구공법, 재난안전신기술, 단가정보를 연계하여 기술 적용 기준을 체계화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 기반 비교를 통해 방재협회 등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기술 검증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피해복구 업무 지원도구로서 자료관리·전문기술 습득 및 예산비용 설정 체계화의 연계 활용이 가능함으로 현장조사부터 복구계획까지 일원화된 업무프로세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이 높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재난 피해예측을 포함한 재난 피해복구 디지털 전환의 제도화, 복구공법 및 단가체계 표준화, 기존 재난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재난 피해복구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며 지속적 연구개발을 해나갈 것이다. **KDPA**

NEWS 01. 고문단 간담회 실시



지난 4월 2일(목), 한국방재협회는 역대 회장으로 구성된 고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병화(제4대 회장), 강병화(제5대 회장), 김진영(제6대 회장), 윤용선(제8대 회장), 방기성(제9대 회장) 고문이 참석했다.

이상권 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이어받아, 협회가 기후변화와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고문단은 제10대 이상권 회장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협회 발전을 당부했다.

NEWS 02. 경상남도 양산시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지난 4월 15일(수)부터 16일(목)까지 2일간, 한국방재협회는 양산시의 의뢰로 경남 양산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재난담당공무원 51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근거한 법정교육으로,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가 주관하여 ▲재난안전종사자의 임무 및 역할 ▲위기관리 매뉴얼의 이해 ▲기후변화와 재난안전 ▲자연재난 관리체계 및 정책 추진 방향 ▲재난복구 정책의 이해 ▲재난심리 및 트라우마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국방재협회는 2026년도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총 14회 계획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을 비롯해 비대면 및 출장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NEWS 03. 제102차 이사회 개최



한국방재협회(회장 이상권)는 4월 17일(금) 14시에 한 국방재협회 교육장에서 제10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상권 회장은 “지난 3월 협회장 취임 이후 처음 개최 하는 이사회로, 전문성을 갖춘 임원 선임과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한국방재협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임원 및 자문위원 여 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101차 이사회 및 제27회 정기 총회 결과보고, 임원선임 및 전문 자문위원 위촉 등 총 3건의 보고사항 보고와 협회 대의원 선출(안) 및 회원 가입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NEWS 04. 서울 주·야간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개강



지난 4월 13일(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서울야간 반이 교육생 53명을 대상으로 개강하였으며, 이어 4 월 20일(월)에는 서울주간반이 교육생 46명을 대 상 으로 개강하였다.

본 교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과정으로, 재해영 향평가 등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 별 표에서 정한 관련 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보유한 자이며, 총 1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할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기술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한국방재협회는 2026년도 방재분야 특수전문 교육을 총 15회 운영할 계획이며, 집합교육을 원칙 으로 하되 비수도권 교육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출장 교육 등 탄력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NEWS 05. 제10대 편집홍보위원회 첫회의



지난 4월 20일(금) 17시, 제10대 편집·홍보위원회 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되었다.

이번 편집·홍보위원회는 류지협 한국방재협회 편집·홍보위원장을 중심으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방재저널의 새로운 방향과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5월호 발간을 위한 특집기사, 재난 관련 뉴스, 위원별 업무분장 및 역할, 협회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방재저널은 격월(홀수월)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NEWS 06.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지난 4월 21일(화), 한국방재협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의뢰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해구호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재해구호의 이해 및 임무와 역할 △재난수습지원체계의 이해 및 대응사례 △재난심리 및 트라우마 등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한국방재협회는 2026년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총 8회(실무자 기본 3회, 전문 1회 / 관리자 기본 3회, 전문 1회) 계획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을 비롯해 비대면 및 출장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NEWS 07. 세종야간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개강



지난 4월 27일(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세종 야간반 이 교육생 55명을 대상으로 개강하였다. 이번 세종 야간반은 한국방재협회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교육장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한 첫 교육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또한 세종 야간교육은 하반기에도 추가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본 교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과정으로,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한국방재협회는 2026년도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을 총 15회 운영할 계획이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비수도권 교육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출장교육 등 탄력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NEWS 08. 재난안전기술평가 실시



〈현장조사〉



〈1, 2차 심사〉

재난안전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총 14건의 재난안전신기술 현장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조사는 총 8건이 진행되었으며, 경남권 시군구를 시작으로 경기권, 충북권, 충남권 시군구 등 전국의 기술 활용 현장을 대상으로 신규성 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4월에는 총 6건의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5월에도 현장조사 5건과 심사 5건(연장심사 포함)을 추진하였다.

본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의 신규성 평가, 현장조사, 우수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재난안전신기술을 지정하고 있다.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우선 권고 활용',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적용, 조달청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활용 혜택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NEWS 09. 영천, 부산야간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수료



〈영천야간 수료식〉



〈부산야간 수료식〉

지난 4월 8일(수), 24일(금)에 각각 영천상공회의소,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 제1, 3회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수료식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방재관리대책업무의 대행을 위한 방재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으로서 지난 2월 25일, 3월 16일 개강하여 30일간 야간반(월~금)으로 운영되었으며, 제1회 영천야간반은 52명, 제3회 부산야간반은 65명이 수료하였다.

NEWS 10. 제33회 방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난 5월 22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재협회가 주관한 「방재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재난·안전 관계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되었으며,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되었다.

특히 부대행사로는 재난안전 신기술 홍보부스 운영을 비롯하여 재난예방 사진·영상 전시, 재난관리 특강 등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1989년 유엔 총회에서는 자연재해 경감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후 여건과 재난 특성을 고려하여 1994년부터 우기 이전인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에 따라 매년 재난 관련 교육·홍보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회원(지자체) 6~7월 주요행사 알림

강원 원주시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 5.20.~6.7.)
— ×

[행사내용] 꽃과 기억의 선물 (꽃사랑에 대한 헌신과 노력)

1. 체험거리
 - 꽃양귀비티셔츠 체험
 - 통열차 체험
 - 자연물공예 체험
2. 살거리
 - 꽃양귀비 가든 마켓 : 꽃양귀비축제기념 손수건, 축제기념 빨간우산
 - 지역농산물 : 꽃모종, 꽃씨, 공예품

※ 자세한 행사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강원도 원주시 용수골 일대에서 열리는 지역 주민의 꽃 사랑에서 출발한 대표적인 지역 축제임. '05년 약300평 규모의 밭 꽃양귀비 심으며 시작했다.

충북 음성군 (음성은 품바야 축제 6.10.~6.14.)
— ×

[행사내용]

1. 메인프로그램 : 전국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 품바 하우스 짓기 경연대회, 전국 품바 래퍼 경연대회, 음성N품바 경연대회
2. 부대프로그램 : 품바 왕 선발전대회, 래퍼캠프, 전국 품바 사진촬영대회, 전국 품바 가요제, 전국 청소년 댄스 퍼포먼스 대회, 품바 뮤지컬, 노숙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오늘의 품바, 품바 live 공연, 2판4판 난장판 등
3. 체험프로그램 : 품바가락배우기, 품바의상체험, 천인의 비빔밥 및 엮이기 등

※ 자세한 행사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음성품바축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돌뱅이의 대명사처럼 굳어진 품바와 최귀동 할아버지의 박애정신을 접목시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다해도 정신적 빈곤과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함. 이러한 사회를 풍자와 해학으로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고 '사랑과 나눔으로 치유시켜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축제가 탄생했다.



특별회원(지자체) 6~7월 주요행사 알림

충남 예산군 (예산 국가유산 야행 6.12.~ 6.13.)



[행사내용]

1. 야경(夜景) 빛으로 밤을 수놓다
2. 야로(夜路) 윤봉길의사를 지켜라!
3. 야사(夜史) 해설사와 떠나는 예산야행 등
4. 야화(夜畵) 예산살롱, 근대복식체험 등
5. 야설(夜設) 한마음 보부상놀이 행렬
6. 야시(夜市) 별빛 걷는 야시장
7. 야식(夜食) 별빛 음식 거리

※ 자세한 행사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예산 국가유산 야행은 6월 12일(금)부터 6월 13일(토)까지 예산군청 및 국가유산 일원에서 개최되는 야간형 국가유산 문화행사다.



강원 강릉시 (펫 가족 힐링 페스티벌 6.13.~ 6.14.)



[행사내용]

1. 메인프로그램 : 펫과 함께하는 행사(솔향기길 보물찾기, 반려견과 함께 모래땅파기)
2. 부대프로그램 : 요트 무료체험, 플라이보드 공연
3.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 솔향기길 보물찾기, 상어배 요가체험, 낚시대회, 반려견과 함께 모래 땅파기, 모래해변 포토제닉 (반려견동반)

※ 자세한 행사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강릉의 푸른바다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반려견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축제이다.





특별회원(지자체) 6~7월 주요행사 알림

부산 수영구 (광안리 어방 축제 6.12.~6.14.)



문화관광체육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변 및 수영사적공원 일원
2026.6.12.(금) ~ 6.14.(일)



[행사내용]

1. 대표프로그램 : 뮤지컬 어방, 경상좌수사행렬 퍼레이드
2. 주제프로그램 : 진두어화, 어방민속마을 운영, 어방그물끌기 한마당, 수문장교대식, 망썰레, 무형문화재공연
3. 체험프로그램 : 맨손으로 활어잡기, 어방수라간, 생선화감짜경매, 내왕소리체험, 광안리비치코딩체험, 모리의 역사탐험 등
4. 부대행사 프로그램 : 행렬 한지등 전시, 문화예술의거리, 소망 등 및 어등전시, 수영성별빛썰미, 황금보리밭 전시, 어방환경 체험관 등

※ 자세한 행사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수영지방은 예로부터 어자원이 풍부해 부산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어업이 발달한 곳이다. 특히 조선시대 경상좌수영 설치에 따라 어민과 수군의 어업협동 공동체인 '어방'이 설치되었으며, 당시 행해지던 어로작업과정을 놀이로 구성한 것이 '좌수영어방놀이'로 보존 전승되고있다. 광안리어방축제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 간다는 의미에서 '어방'이라는 축제명을 사용하며, 경상좌수영과 전통 어촌의 민속을 주제로 한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이다.



경기 수원시 (와인 뮤직 페스티벌 6.25.~ 6.28.)



[행사내용]

1. 메인프로그램
- 와인
2. 부대프로그램/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 블라인드 테이스팅 - 와인을 맞혀라
- 라이브 공연

※ 자세한 행사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초여름의 따뜻한 공기 속, 와인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성 페스티벌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와인과 라이브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라이프스타일 이벤트다.





특별회원(지자체) 6~7월 주요행사 알림

강원 횡성군 (횡성호수길 축제 6.12.~ 6.14.)



[행사내용]

1. 메인프로그램 : 개막식 및 폐막식
2. 부대프로그램 : 한-뽕 정원, 호수길노래자랑 등
3.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 나만의 요정 그리기 체험 등
4. 기타 : 먹거리 부스, 농특산품 판매 부스 등

※ 자세한 행사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횡성호수길 축제는 횡성호수길 5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로 횡성호의 아름다움과 자연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쉼의 축제”다. 횡성댐에 인공으로 조성된 호수를 중심으로 조성된 31.5km 6개 코스 중 9km 길이로 조성된 5구간은 세곳의 전망대와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어우러져 시간의 느낌을 만끽할수 있다.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 축제 6.12.~ 6.14.)



[행사내용]

1. 메인프로그램 : 저산팔읍길쌈놀이, 모시옷패션쇼, 개-폐막식 및 바람음악회
2. 부대프로그램 : 한산모시학교, 미니베틀짜기 체험, 모시 원데이 클래스
3.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 모시옷 입기 체험, 스탬프 투어 및 관광 연계 프로그램
4. 기타 내용 : 한산모시 주제 전시 및 야간 경관조명, 지역 특산물 및 먹거리 부스 운영 ※ 자세한 행사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한산모시문화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전통섬유 축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산모시짜기’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된다. 매년 6월,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관 일원에서 열리며 한산모시학교, 미니베틀짜기 체험, 저산팔읍길쌈놀이 등 다채로운 모시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전통과 자연, 그리고 체험이 어우러진 한산모시문화제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날 수 있다.





특별회원(지자체) 6~7월 주요행사 알림

대구 달서구 (대구치맥페스티벌 7.1.~ 7.5.)



[행사내용]

1. 관람행사
- 치맥K-POP 콘서트, 치맥EDM Party, 치맥버스킹, 초청공연
2. 참여행사
- 치맥아이스팜, 치맥시민참여이벤트, 치킨신메뉴 경연대회, 수제맥주 경연대회
3. 체험행사
- 사전예약 식음존, 비즈니스라운지, 대프리카워터피아, 치맥더클럽, 놀러와요EGG섬, 치맥여행자의거리, 치맥포토존, 치맥아이스팜, 치맥게임존

※ 자세한 행사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대구를 대표하는 여름 문화관광축제로, '치킨'과 '맥주'를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식음 축제이다.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누적 관람객 100만 명 이상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구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 축제 7.24.~ 8.9.)



[행사내용]

1. 공식 프로그램
2. 체험 프로그램
- 머드체험존(일반존&머드런/패밀리존/워터파크존) 등
3. 공연 프로그램
- 개막공연 K-POP 슈퍼라이브 등
4. 전시/판매 프로그램
- 머드화장품 및 캐릭터 전시 판매 등
5. 연계 프로그램
- 보령머드 월드투어 등

※ 자세한 행사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체험형 여름축제이다. 바다를 바라보며 머드를 온몸으로 느끼는 일반존과 가족이 함께 하는 패밀리존 및 워터파크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낮에는 머드를 적시며 보낼 수 있고, 밤에는 다양한 공연, 불꽃쇼 등을 볼 수 있다.



불행중 다행



윤 순 섭

한국수필가협회 작가

우리가 살면서 긴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 내릴일이 어디 한두번인가. 좋은일이 생기면 기쁨으로 행복감을 느끼지만 불행이 닥쳤을때는 어찌할바를 모르게 휘청거리게 된다. 그중에서도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경우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

얼마전 안사돈이 산에 갔다 큰 부상을 입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너무 심하게 다쳐서 긴 시간동안 수술을 받으셨다. 평소에도 항상 밝은 얼굴에 미소가 예쁜 사돈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명랑함을 잊지않고 있어 안쓰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안 다치고 말할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셨다. 재활훈련 할 때면 선생님께 화이팅 하신다니 긍정적인 사고에서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알수 있어서 가슴이 찡해온다. 조금씩 나아지신다니 그야말로 불행중 다행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시련은 무난한 삶을 주눅들게한다. 예고없이 찾아온 불행은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한다. 환자는 자신을 추스르려는 노력 때문에 가족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기 어렵다. 한가닥의 희망의 줄을 잡고 버텨 보기도 하지만 가슴이 짓눌리는 엄청난 무게는 웬만해선 견딜수 없다. 그렇지만 삶은 불행보다 행운이 더 많이 찾아오고 불행이 닥쳐도 최악의 상태가 아니면 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그래서 수시로 나오는 말이 감사다. 기쁜일보다 슬픈일이 없음에 감사하고 불행에 맞닥뜨려도 견딜수 있음에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주 들수록 조그만 일에도 행복해 한다. 우리가 불운이 와도 견딜수 있는건 뒤 쫓아 오는 행운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평소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신 사돈이다. 그러나 관찮은척 말하시는 음성에서 내포되어 있는 작은 두려움을 감지할수 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시려는 마음가짐에 응원을 보낸다.

우리의 삶은 스테인드 그라스로 꾸며진 모자이크 같다.

색채와 모양이 다르다. 밝고 화려한 색깔로만 이루어졌다면 어디 그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까.

어두움과 뚜렷한 명암으로 나름대로 기쁨과 슬픔의 다양한 빛으로

조화를 이루었기에 매력 있지 않을까.



두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한 집안이 된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긴 세월동안 한해도 거른적 없이 여름이 되면 1박2일로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많은 담소를 나눈다. 어려운 사돈시간 이지만 마치 형제간 같은 사이가 되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은 우리의 이와같은 관계를 매우 부러워 한다. 하지만 살면서 예상 못한 변수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도 전에 팔을 크게 다쳤던 경험이 있어 안사돈의 아픔이 절실하게 공감된다. 그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한 사돈이 너무 걱정이 되지만 잘 이겨 내시리라 믿고 정성 다해 기도 하고 있다.

하루를 마감하는 조용한 저녁시간에 감사할 일을 생각해 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 화장실 갈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부신 햇살에 얼굴을 찡그리며 걸어 다닐수 있는 소박한 일상의 평범함이 고맙고 감사할 일이다. 젊을때 당연히 했던 날마다의 일들이 행복이었다는것을 아픈곳이 많아지고 쉽게 다칠수 있는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 알것 같다. 젊음을 누리기만 했지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깨닫지 못했다. 육체적인 건강에는 신경쓰지만 정신적인 쇠락에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심신이 약해진 다음에야 허둥지둥 하게 된다. 몸이 아프면 마음의 평온을 누릴수 없고 고독해진다. 우선 몸의 고통보다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지 그것이 관건인것 같다. 어찌보면 젊음이 짧은 순간이기에 더 아쉬운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은 스테인드 그라스로 꾸며진 모자이크 같다. 색채와 모양이 다르다. 밝고 화려한 색깔로만 이루어졌다면 어디 그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까. 어두움과 뚜렷한 명암으로 나름대로 기쁨과 슬픔의 다양한 빛으로 조화를 이루었기에 매력 있지 않을까. 노화하는 신체에 속상 하기보다 쉬엄쉬엄 심신의 휴식을 누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자. 사람이 살아 가면서 멈추고 쉬는 침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달리기도 잘하는 손주의 손을 잡고 함께 뛰는 사돈의 모습을 그려본다. 따스한 봄햇살에 질게 풍기는 풀향기도 그리워할 사돈에게 빠르게 아픔이 치유되길 염원해 본다.

KDPA



정 해 옥

(주)청명종합엔지니어링 회장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의 한 은신처에 숨어 지내며 그 외로움과 두려움, 답답함, 소녀로서의 꿈과 희망,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리고 그런 속에서 가족애와 사랑,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를 진솔하고도 세밀하게 일기로 썼던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 그러나 숨어 지내던 은신처가 발각되면서 2년가량 써 오던 일기는 1944년 8월 1일로 끝나고, 나치 독일의 유대인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받다가 이듬해인 1945년 5월 수용소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던 안네 프랑크.

나치 독일의 그 엄청난 폭력 앞에서 영문도 모른 채 고통 받고 신음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그녀가 썼던 일기는 그 후 그녀의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1947년 '안네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5세 전후의 소녀의 눈에 비친 전쟁의 잔혹함과 광기 어린 인간에 의해 저절러졌던 그 엄청난 비극, 그 와중에서 무참히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이 직접 겪고,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해놓은 이 일기는 그 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심금을 울렸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6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이라는 유대인 표시가 된 노란색 별 표시를 달아야 하고, 바퀴가 달린 것을 타고는 이동할 수 없으며, 밤 8시 이후에는 집안에만 있어야 하고 베란다에 나가는 것조차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스포츠 활동은 할 수조차 없었던 외롭고 답답하고 암담했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나치에 의해 끌려가지 않기 위해 더욱 꼭꼭 숨어 지내며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던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꿈 많은 사춘기 소녀, 밝고 활달하게 지내야 할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외로움, 답답함, 두려움, 소외감, 갈등, 고뇌, 슬픔, 분노심 같은 것들을 모두 생일날 선물로 받았던 일기장 '키티'에 털어놓고 하소연했으며, 또 그의 다정한 베풀어 주었던 일기장 '키티'를 통해 한없는 위로도 받았다. 그러면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은신처 생활을 곳곳하게 이겨 낼 수 있었다.

만일 그녀에게 일기장, 또는 자신의 모든 삶과 생각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일기 쓰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녀의 은신처 생활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에게 있어서 일기 쓰는 행위야말로 그 거칠고 험악한 세상, 모든 것이 다 상실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가장 큰 위로, 희망이었으며, 그녀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는 '약'과도 같은 것이었다.

폴란드의 반독反獨 저항 단체에서 활동하며 나치 독일과 맞서 싸웠던 마르틴 그레이가 쓴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모두 사실 그대로인 철저한 '논픽션'인데, 여기에도 나치 독일의 잔학성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이 '논픽션'을 쓴 마르틴 그레이는 나치가 12년(1933년~1945년)동안 자행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을 의미하는 '홀로 코스트'로 110명이나 되는 일가친척을 잃고 그가 보는 바로 눈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되는 참상마저 겪는다. 그리고 그는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한 후 나치 독일에 저항하며 싸운다.

종전 후인 1947년 그는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고생하다가 골동품 무역으로 재산을 모은다. 이어 37세에 네덜란드 여성과 결혼하여 프랑스로 가서 살며 네 자녀를 두고 살아간다.

그런데 잠시 행복했던 그에게 또다시 불행이 덮친다. 1970년 그가 살던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 연안의 휴양지

리비에라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그의 아내와 네 자녀 모두 불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때 받은 고통, 슬픔으로 자살하고픈 충동마저 느낀다. 그러나 자신이 이제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통, 비극을 글로 써 보기로 하고 '논픽션'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살아야 하다, 나는 살아야 한다』이다. 자살 충동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 그는 '살아야 한다.'를 수없이 되뇌이며 그간 겪은 고통, 슬픔을 글속에 쏟아 부었다. 자신과의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살아가고 끝까지 버텨내면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나의 죽음과 내 가족의 죽음을 보상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이어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 희망이란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에 숨어 있는 말이다.”

-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한다>
(마르틴 그레이 지음, 김양희 옮김, 21세기 북스)

거칠고 험악한 세상, 모든 것이 다 상실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 희망이 되는지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일제 치하의 어둡고 참담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참고 견디며, 또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시나 소설, 수필, 칼럼, 또는 각종 동인지, 잡지 등을 통해 글을 쓰고 발표했던 무인들이 다양한 방법의 글을 통

해 때로는 직설적으로, 또는 은유, 상징적인 수법으로 압제에 시달리는 민중에게 용기, 희망을 불어넣었다.

위로, 기쁨을 안겨주었다. 고통, 슬픔을 달래 주었다. 민족해방의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투쟁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암흑기를 잘 견디어 내었다. 마침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발생한 6·25 전쟁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이때에도 문학이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

문학은 전쟁의 그 참혹함, 비극성, 죽음의 공포, 절망을 초극하려는 인간의 근원적 몸부림과 생명의 수중함 등을 알리고자 힘썼다. 살벌한 세상 속에서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 희망이 되어 주고자 노력했다.

나는 광주 산골을 헤매다가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
산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식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고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욱 짙은 피의 향기여!
옆드려 그 젊은 주검을 통곡하며
나는 듣는다!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스물다섯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고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

- 모윤숙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에서

승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시도 되지만, 무모한 전쟁으로 희생된 한 젊은이의 죽음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아픔, 상실의 아픔이 잘 드러나 보이는 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으로 폐허의 아픔을 딛고 산업 근대화 정책에 따라 경제개발 계획이 연이어 추진되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빈부간의 격차와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 기계화에 따른 비인간화, 생명경시 풍토, 정신적 가치관의 파괴와 환경오염, 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인간의 존엄성 파괴,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고발하며 그 시정을 촉구하는, 이른바 ‘현실 참여 문학’ 또는 ‘민중 문학’이니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들테면 조세희의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은강이라는 공업도시에서 온 가족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난장이 가족의 이야기로서 그들의 열악한 삶의 환경과 착취당하는 삶. 기계처럼 일하고 벌레 같은 대우를 받으며 억압받고 소외되는 아픔, 그들의 분노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절규가 잘 묘사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철호의 장편소설 <똥털 영감의 꿈>은 도시 외곽에 있는
뚝방 동네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실상과 가진 자들로부터
받은 박해와 상처, 조직화된 폭력과 맞서 싸우면서 겪는
분노와 슬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 등을 그려 냄
으로써 이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울분
을 대변하고 모순된 사회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작품이다.

노동자 시인 박노해는 표현이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
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 겪는 온갖 고통과 슬픔, 철저하
게 노동을 착취당하면서도 인간적인 대접은 제대로 못 받
고 오히려 멸시당하는 도시 노동자들의 분노와 삶의 고뇌
를 현실감이 넘치는 시들로 그들을 대변하고자 했다. 그의
대표작 <노동의 새벽>을 보자.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가지

설은 세 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바둥치는
이 전쟁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 가도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허깨비 같은

스물아홉의 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아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에를,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

늘어쳐진 육신에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소주보다 독한 깡다구를 오기를
분노와 슬픔을 붓는다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뜨려 솟구칠
거치른 땀방울, 피눈물 속에
새근새근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잔을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쏟아오를 때까지

문학은 그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건 민중의
아픔, 울분을 대변하며 부조리하고 모순된 사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 왔다. 뿐만 아니라 거칠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민중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일에도 큰 몫을 해 왔다.

안네 프랑크나 마르틴 그레이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것이 일기든 ‘논픽션’이든, 또는 시나 수필, 소설과 같은 문학이든 글을 쓴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위로 받고 힘을 얻으며 포기하려던 목숨까지도 살릴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

시대가 어수선할수록, 삶의 고통과 시련이 심해지면 심해 질수록, 스스로 살기 싫다는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학과 글쓰기 행위는 더욱 가까이해야 하는 것이다. 문학과 글쓰는 행위는 곧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신체, 정신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문학 치유만한 게 없다. 문학은 인간의 상처받는 영혼을 치유해 준다. **KDPA**

* 참고문헌 <한국문인>





재난안전기술 평가 제도 란?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23. 1. 5)시 사회재난 기술 포함하여 재난 전체(자연재난+사회재난)로 재난안전신기술 확대 심사 실시

추진경과

- + '05.1월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제도 도입
- + '06.6월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전문기관 지정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2항
- + '12.7월 : 조달청 PQ 심사 시 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해 점수 부여
- + '12.8월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방재신기술”로 명칭 변경
- + '13.11월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 + '14.1월 : 방재신기술 ‘NET’ 마크통합
- + '06~22년 :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 + '23.1월 : 방재신기술 → “재난안전신기술”로 명칭 변경 ※ 근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 '23.1월 : 재난안전기술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신청대상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재난안전기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제4호

제3호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호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심사절차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 유효기간 연장심사



심사기준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 1차 심사 : 신규·진보성 및 재난안전 분야 기술 해당 여부, 현장조사 시 확인사항 등 결정

평가항목(만점)		평가기준
신규·진보성 (70)	신규성(4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
	진보성(3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도
우수성(30)		기술의 성능(10점), 현장적용성(10점), 시장성(10점)

- 2차 심사 : 기술의 우수성 및 신규·진보성 등 평가

구 분	평가항목(만점)	평가기준
우수성 (80)	기술의 성능 (30)	재난안전기술의 성능·효과의 우수성
		재난안전기술의 안전성 및 완성도
	현장적용성 (3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유지관리의 안전성 및 편리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공사비, 유지관리비의 절감 효과
신규·진보성 (20)	시장성(20)	신청 기술의 대한 활용가능성, 시장확대 가능성
	신규·진보성 (2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 되는 기술(신규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도(진보성)

심사기준 (유효기간 연장)

평가항목		평가기준
활용실적(30)		활용건수 및 활용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10)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재난안전효과(20)	지정 후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방재 효과의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배점
	경제성(10)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 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안전성(10)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유지관리 편의성(10)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편의성 정도에 따라 배점
	기술 개량·개선 노력(10)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가점(10)		해외활용실적 및 기술보급 노력 등에 따라 부여

지정신기술의 지원사항

○ 'NET'신기술 마크 사용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인증기술의 명칭과 유효(보호)기간을 표기하여 사용

※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 지정 5년, 유효기간 연장 최대 7년



○ 신기술 유효기간

- + 신기술 최초 지정 및 검증 시 보호기간 5년, 보호기간 연장 시 평가 점수에 따라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연장

○ 신기술 활용 업무 담당자 책임 경감

- + 신기술 제품 구매 및 활용 공사를 발주한 담당자는 신기술로 활용으로 인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 + 신기술로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 + 동종분야의 신기술간 제한경쟁입찰 가능

○ PQ 점수 부여

- + 조달청 및 공공기관 PQ심사 시 방재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해 점수 부여
 - ※ [기획재정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신기술 우선 활용

- + 행정안전부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시 재해 취약성을 고려하여 신기술 우선 활용 권고

○ 기타 지원혜택

-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신기술 단가 반영

인장형 탄성 넷와 장력센서 기반 스마트 토석류 방호 재난 경보 기술



지정번호	재난안전신기술 제2025-22호		
기술명	인장형 탄성 넷와 장력센서 기반 스마트 토석류 방호 재난 경보 기술		
기술개발자	스마트이앤씨(주) (대표 김용진)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보듬관 801호 (tel.033-250-6463 / fax.033-251-6463)
	(주)온누리로 (대표 조용석)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3로 73 (tel.043-852-1235 / fax.043-853-1235)
보호기간	2025.08.06. ~ 2030.08.05 (5년)		
홈페이지	http://www.smarteandc.com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 토석류를 포함하는 산사태나 낙석이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되어 일차적으로 계곡부의 토석류를 방호하고 토석류 정보를 스마트 계측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계곡 하류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IoT 기반의 지능형 조기 경보 기술
 - 토석류 충격 완화 및 에너지 흡수 성능이 배가된 인장형 탄성 넷
 - 신호분해능 및 측정 정확도가 개선된 토석류 충격력 감지용 스마트 장력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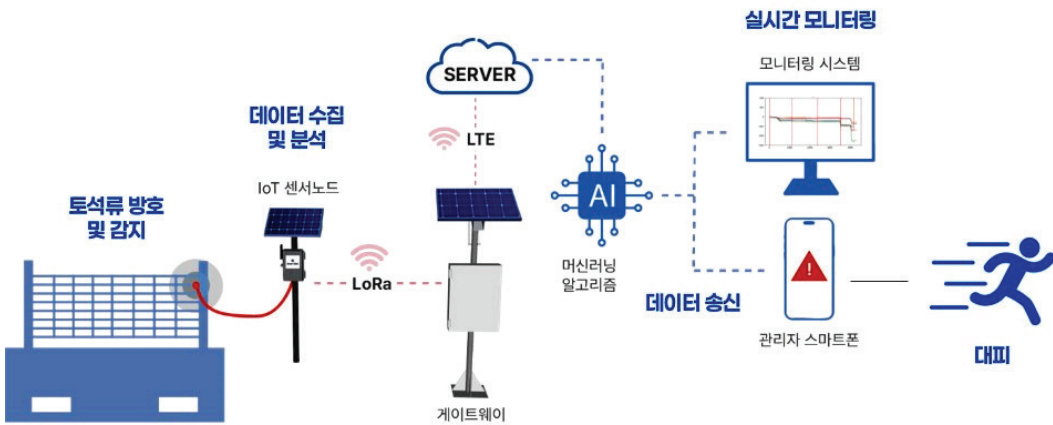
(2) 내용

- 와이어로프와 인장스프링을 결합한 인장형 탄성 넷를 적용하여 대규모 토석류의 충격을 흡수·분산하고, 넷에

부착된 장력센서를 통해 충격력을 정밀 계측하여 IoT 기반 서버에서 실시간 분석·조기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에 기여함.

나. 신기술의 특징

- 와이어로프와 인장스프링을 결합하여 토석류 충격력을 흡수·분산하고 동적 에너지 저감 성능을 극대화함.
- 토석류 충격에 따른 네트의 미세 변위(0.01mm 수준)까지 감지 가능한 고성능 장력 센서를 적용하여 정밀 계측이 가능함.
- 디지털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계측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AI(머신러닝) 기반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자동 경보를 발령함.



다. 신기술의 시공순서(작동방식)

01 지주 설치



02 인장형 와이어로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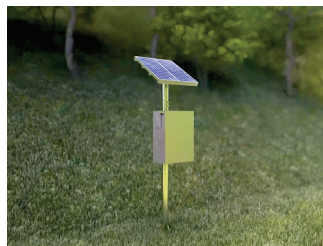
03 인장센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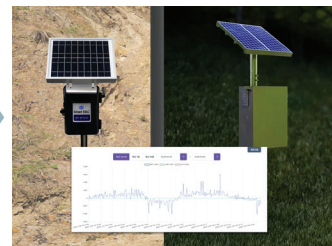
04 센서노드 설치



05 게이트웨이 설치



06 통신 테스트



2.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 없음

나) 향후 활용전망

- 본 재난안전신기술은 대규모 토석류의 충격을 흡수·분산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통해 재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재료의 경량화와 시공 공정의 단순화를 통해 산지·계곡·터널 등 다양한 재해 취약 구간에 설치·운용이 가능한 특성과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방댐 공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외 재난안전 분야에서 높은 활용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3. 기술 문의처

회사명	소속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스마트이앤씨(주)	연구개발부	이경수 이사	kslee@smarteandc.com	070-4610-372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2026년 5월 기준)

재해별 신기술 지정현황 (총 지정건수)

구분	총 계 (339건)								
자연재난	소계	내수	하천	사면지반	지진	해안	대설	낙뢰	폭염
	313	107	92	48	42	7	6	9	2
사회재난	소계	안전관리	교통사고	화재	붕괴	미세먼지	안전사고	-	-
	26	9	3	6	3	1	4		

26년도 신규 지정현황

구분	지정번호	지정업체	신기술명	보호기간	비고
1	제2026-1호	해전산업(주)	윤활유가 프레임 내부에 저장되는 드럼식 권양기	'31.3.5	내수재해
2	제2026-2호	동인위터솔루션(주)	저수위 운전을 위한 흡입커버 부착 수문일체형 횡축수중펌프	'31.3.8	내수재해
3	제2026-3호	한국해양산업(주), 새누리산업(주)	안정성과 안전성 개선을 위해 돌기와 띠형 단턱부를 설치한 테트라포드	'31.3.8	해안재해
4	제2026-4호	(주)대련건설,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롯데건설(주), (주)유신	교량 가설 중 거더의 신속한 횡변위 보정으로 전도안전성 향상이 가능한 콘크리트 거더교용 강관가로보의 시공기술	'31.3.26	안전사고

※ 재난안전신기술의 자세한 기술 내용은 QR코드 접속하여 확인바랍니다.



재난안전신기술 심사위원 등록 안내



1. 재난안전신기술 평가 제도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2. 평가위원 자격요건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 +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
- +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 + 재난안전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 재난안전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 +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3. 평가위원 수행업무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따른 현장조사 및 심사
- +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심사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연장 취소 심사

4. 문의 및 제출처

- +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 + 평가심사위원 신청서 제출방법 : E-mail 제출
※ 담당 : 연구기술실 김진호 팀장
- + TEL : 02-6952-9388 + FAX : 02-3472-8064
- + E-mail : kjh85@kodipa.or.kr

5. 제출 서류

○ 증명서류(각 1부, 사본 제출(PDF 제출) 가능)

1.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2. 관련 분야 기사 자격증
3. 최종 학위증명서
4.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필요 연수 증명 위함)
5. 그 밖에 전문가 등록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분야 자격증”이란 신기술 전문분야 분류표(붙임3)와 관련된 자격증

○ 재난안전신기술 심사위원 자격별 필수 제출 서류

▶ 아래 기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증명서류 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2,4)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3, 4)
4.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3,4)
5. 재난안전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증명서류 4)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기관장이 인정한 자 (증명서류 3,4,5)

한국방재협회 회원가입안내

○ 한국방재협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협회 정관 제6조)

- 개인(평생)회원 : 방재관련분야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종사자 등
- 단체회원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방재관련 연구기관과 단체,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방재용자재의 생산업체 등
-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관련 단체 등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방재·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위원 추천
- 풍수해 등 재해발생 조사와 관련학술 연구용역업무 참여 및 지원
- 재난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컨설팅 및 지원
- 재난안전신기술 평가위원 및 협회 자문위원회 참여
- 정기간행물 “방재저널” 우송 및 세미나 워크숍 무료초청
-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재난안전종사자, 기업재난관리사) 수강료 할인
- 홈페이지 내 방재·재난 최신 정보 및 자료 공유 게시판 제공

○ 회원가입 방법

협회 홈페이지(www.kodipa.or.kr) 「회원가입」 탭에서 원하시는 회원(개인, 단체, 특별)을 클릭하여 작성 후 “가입”을 눌러주시고, 아래 계좌 또는 지로용지(요구시 송부)로 회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곳 : (우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 3층 한국방재협회
(T. 02-3472-8063, F. 02-3472-8064, E-mail : master@kodipa.or.kr)
- 회비입금계좌 : 기업은행 062-061676-04-016 (예금주 : 한국방재협회)

○ 회비 안내

회 원	구 분		년회비
개인회원	개인회원(매년 연회비 납부)		30,000원
	평생회원(연회비 없음)		300,000원
단체회원	특급(상근인력 1,000명 이상)		2,000,000원
	1급(상근인력 100명 이상~1,000명 미만)		1,000,000원
	2급(상근인력 100명 미만)		500,000원
특별회원	광역자치단체(시·도)		3,000,000원
	기초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	2,000,000원
		인구 50만 미만	1,000,000원
	재난관리책임기관		2,000,000원
	기타단체(지방공기업 등)		1,000,000원

한국방재협회 회원동정 및 신규회원

○ 신규 회원가입 : 개인회원 31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단체명)	직위	가입일
1	개인	이윤한	도화엔지니어링	기술고문	20260301
2	개인	김범구	경북대학교	박사수료	20260303
3	평생	강병국	(주)페트라텍	대표이사	20260303
4	개인	이현욱	강릉시청	주무관	20260303
5	개인	이성수	(주)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	20260309
6	평생	이한률	DL이엔씨	부장	20260311
7	개인	최정호	한국도로공사	지사장	20260311
8	개인	박종만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20260313
9	개인	최형식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부회장	20260313
10	개인	손아롱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수	20260317
11	개인	백정훈	(주)강토엔지니어링	사장	20260318
12	평생	이육범	스마트안전기술	대표	20260324
13	개인	윤희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20260325
14	개인	이양선	(주)유원엔지니어링	이사	20260401
15	개인	김정문	송파구청	팀장	20260401
16	평생	이상혁	한경엔지니어링	부사장	20260403
17	개인	정기현	두원엔지니어링	전무이사	20260403
18	평생	임원빈	(주)케이씨아이	부사장	20260407
19	개인	최기태	도시종합건설(주)	부사장	20260407
20	개인	홍승원	(주)세경엔지니어링	회장	20260407
21	평생	김제훈	산청군청	지방시설서기	20260407
22	평생	정지윤	(주)케이알티씨	상무	20260408
23	평생	정광민	(주)경호엔지니어링	상무	20260408
24	개인	김기환	(주)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20260409
25	평생	홍승호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교수	20260413



연번	구분	성명	소속(단체명)	직위	가입일
26	평생	박원길	주식회사 신일엔지니어링	대표	20260420
27	개인	나창용	(주)세광종합기술단	부사장	20260421
28	개인	임재원	광주광역시	주무관	20260421
29	평생	이종찬	일신이앤씨	부사장	20260428
30	개인	김한샘	동국대학교	조교수	20260428
31	개인	김정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0260430

○ 단체회원 : 1개사

연번	단체명	대표자	가입일	비고
1	(주)상연이엔지	서동수	20260415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방재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교육시간

- 총 150시간
- 주간반(15일)
09:00 ~ 18:00
- 야간반(30일)
18:00 ~ 22:00

교육비

- 145만원
(교재비 15만원 별도)
- * 공무원, 대학생 교육비
할인 및 교재제공
-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출장 교육 가능

교육신청



교육목적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관리대책 업무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분야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급경사지 재해예방 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우수유출저감대책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 침수흔적도 작성

교육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 별표 해당자

-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보유자
(토질및기초, 수자원, 토목시공, 토목구조, 도로및교통, 농어업토목, 지질및지반, 산림, 상·하수도, 건설안전, 해안및항만, 측량및지형공간, 건축공학, 도시계획, 건설안전분야 등)
- 기술직 15년 이상, 재난관리분야 7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기술사급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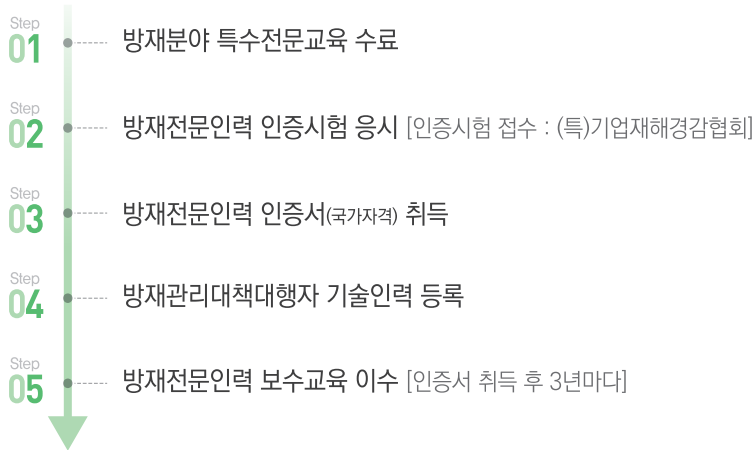
교육내용

구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교육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 전문과정 개강일 기준 일주일 전 개설	· 오프라인 교육 ※ 시간이수제 신청 가능
주요내용	· 재난관리 이론 - 기후변화 대응과 방재 - 재난발생 및 대응 사례 - 한국의 기상여건과 재해특성 - 재난심리의 이해 - 방재분야 표준품셈의 이해 등 · 재난관리 법령 - 자연재난관리체계 및 정책추진방향 - 재난 및 안전관련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등	· 계획수립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 재해영향평가 - 풍수해 비상대처계획 - 침수흔적도 - 소규모공공시설 - 급경사지 재해예방 · 사업시행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우수유출저감대책 - 재해복구사업 - 소하천 정비계획

수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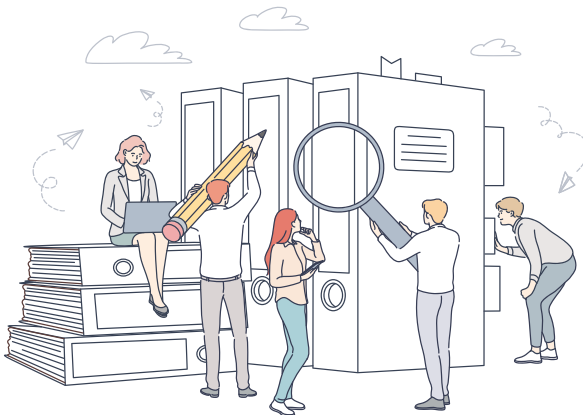


📌 인증서 취득 및 활용 절차



📌 기대효과

- 0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등록 가능(8분야)
- 02 중앙·지자체 재해영향평가 등 심의위원으로 활동 가능
- 03 재난안전신기술 평가위원 등 방재전문가로서 활동 가능
- 04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재난안전종사자 교육 등 방재분야 전문 강사로 활동 가능
※ 상시학습 인정(공무원), 기술사교육 학점 인정



KDPA
Together for
Safe Korea



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4항(방재전문교육과정)

교육시간

• 2일, 총 16시간
09:00 ~ 18:00

교육비

• 22만원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 가능

교육신청



교육목적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교육대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

보수교육 관리기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별표3의3)

초보 보수교육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이후 보수교육

-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다만, 이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의 경우 :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보수교육 미수료자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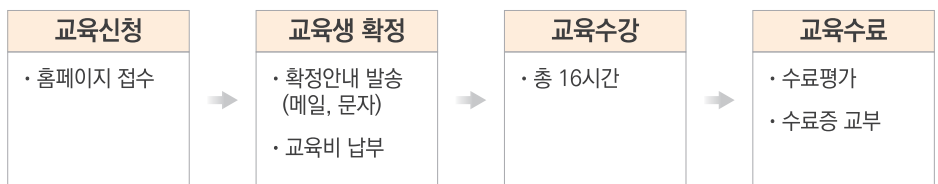
교육내용

방재전문인력의 실질적 역량강화 및 교육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종합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

※ 3개 과정 중 어느 과정을 이수해도 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 수료로 동일하게 인정

구분	종합과정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심화과정
주요내용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10개 분야 실무 • 토의/평가	• 재해예방관련 정책 및 법령 • 재해영향평가 실무 - 작성실무, 사후관리, 사례분석 • 토의/평가	• 재해예방관련 정책 및 법령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실무 - 작성실무,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사례분석 • 토의/평가

수강절차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교육

자연·사회재난에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하고 피해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및 컨설팅,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교육

* 법적근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교육시간

09:00 ~ 17:00

- 실무 : 5일, 35시간
- 대행 : 10일, 70시간
- 인증평가 : 5일, 35시간

교육비

- 실무 : 60만원
- 대행 : 120만원
- 인증평가 : 60만원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 가능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출장 교육 가능

교육신청



교육목적

재난 발생 시 기업 스스로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확보·복구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대상

- 방재, 재난안전, 리스크 관리, 경영기획 관련 담당 및 관리자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취득 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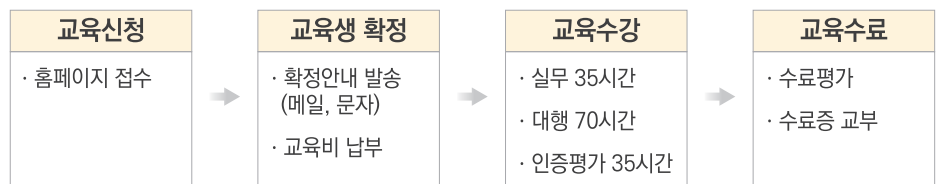
교육내용

구분	실무	대행	인증평가
교육목표	· 사내 재해경감활동 실무자 양성	·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 양성	·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평가위원 양성
주요내용	· 재해경감활동 프로젝트 이해 · 업무영향분석 · 위험평가 및 분석 · 업무연속성 전략 및 절차 이해 · 훈련 및 테스트 ·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	· 재해경감활동 정책 수립 · 업무영향분석2 · 위험평가 및 분석2 · 업무연속성 전략 및 절차 실행 ·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실행	· 인증제도의 이해 · 인증심사기준 · 심사프로세스 · 심사실습

기대효과

실무	대행	인증평가
① 교육과정 이수 ② 인증시험 응시 ③ 기업재난관리사(실무) 자격 취득 ④ 사내 재해경감활동 업무 수행(업무담당자)	① 교육과정 이수 ② 인증시험 응시(실무 자격취득 하고, 대행과정 이수한자) ③ 기업재난관리사(대행) 자격 취득 ④ 대행자 등록(최소 6명 인력 확보) 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업무 수행	① 교육과정 이수 ② 인증시험 응시(대행 자격취득 하고, 인증평가 이수한자) ③ 기업재난관리사(인증) 자격 취득 ④ 인증평가 대행기관 지정 (최소 5명 인력 확보) ⑤ 우수기업 인증

수강절차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받아야하는 정기 및 수시교육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교육시간

- 실무자 : 2일, 14시간
- 관리자 : 1일, 7시간
- 매뉴얼과정 : 3일, 21시간

교육비

- 실무자 : 22만원
- 관리자 : 11만원
- 매뉴얼 : 30만원

*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교육비 할인 가능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 교육 가능

교육신청



교육목적

- 국가재난관리 정책의 이해 및 재난안전관리능력 향상
- 재난발생 시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및 중단없는 공공서비스 및 행정업무 능력 향상

기본방향

재난관리 업무능력 향상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영	위기대응능력 향상
· 재난관리업무 기본개념 습득 및 실무능력 향상 · 안전점검능력 향상을 통한 재난의 예방·대비능력 배양	· 위기관리매뉴얼(표준, 실무, 행동) 및 정책방향 이해 · 재난대응수칙 및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및 운영	· 재난사례별 대응전략 수립 및 정책반영 ·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중단없는 공공기관 기능 유지

교육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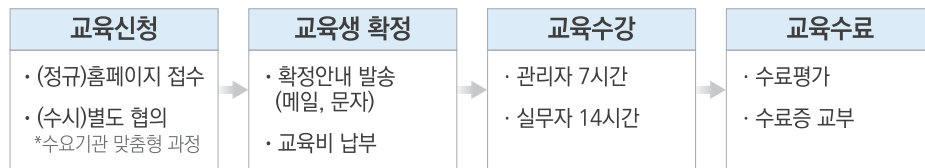
- 실무자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직원
- 관리자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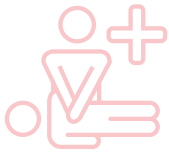
교육내용

구분	기본과정		선택과정
	실무자과정 2일, 14시간	관리자과정 1일, 7시간	매뉴얼과정 3일, 21시간
교육목표	재난관리 실무능력 배양	통합 재난상황관리 향상	위기관리매뉴얼 이해 및 작성
주요내용	· 재난관리체계의 이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해 · 통합재난상황관리 실무 ·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이해		· 위기관리매뉴얼 정책 이해 · 재난유형별 대응사례를 통한 위기관리 실무능력 배양 · 재난대응수칙 및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능력 향상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강절차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

재해구호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 법적근거 :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교육시간

- 기본과정
(실무자, 관리자)
: 1일, 7시간
- 전문과정
(실무자, 관리자)
: 3일, 21시간

교육비

- 기본과정
(실무자, 관리자)
: 10만원
 - 전문과정
(실무자, 관리자)
: 30만원
- *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교육비 할인 가능
-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 교육 가능

교육신청



교육목적

- 재해구호 정책의 이해 및 체계적인 재해구호 활동 능력 향상
- 재난발생 시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및 재난 피해자 구호활동 실무 전반의 이해

교육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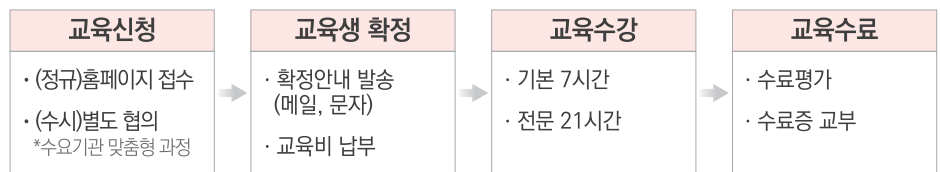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단체, 지역자율방재단원, 새마을운동중앙회원 등

교육내용

구분	기본과정 (실무자, 관리자)	선택과정 (실무자, 관리자)
	1일, 7시간	3일, 21시간
교육목표	· 재해구호 절차의 이해 및 재해구호 활동 실무능력 향상 · 재해구호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구호업무 추진 · 재난현장 협업능력 향상	
주요내용	·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 일반 · 재해구호전문인력의 임무와 역할 · 재난심리의 이해 · 응급조치 및 구호활동의 실무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강절차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연재난안전”분야의 안전역량을 위한 교육

* 법적근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제13조

교육시간

· 1일, 4시간

교육비

· 5만원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 교육 가능

교육신청



교육목적

재난대응(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 구호활동 등) 이해 및 재난발생 시 대처방안 습득

교육대상

청소년기 또는 청년·성인기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

운영분야

- 안전분야/영역 : 자연재난안전
- 안전교육 범위 : 재난대응(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 구호활동)

안전분야	안전영역	안전교육 범위
자연재난안전	자연재난안전	(재난대응)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 구호활동
		(기후성재난) 홍수, 태풍, 미세먼지·황사, 대설·한파, 낙뢰, 폭염, 가뭄
		(지질성재난) 지진, 지진해일, 산사태

교육내용

구분	자연재난안전 행동요령 과정	자연재난안전 대응요령 과정
교육목표	자연재난의 이해 및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습득	자연재해 유형별 대처방안 및 재난구호활동 습득
교육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직장인, 공무원, 자원봉사단원 등
주요내용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 자연재난의 이해 및 특성 ·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 응급처치 및 재난발생 시 대피방법 실습	· 재해유형별 대처방안 · 재해구호활동의 이해 · 재난유형별 대피 및 재해구호활동 실습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강절차

교육신청	교육생 확정	교육수강	교육수료
· (정규)홈페이지 접수 · (수시)별도 협의 *수요기관 맞춤형 과정	· 확정안내 발송 (메일, 문자) · 교육비 납부	· (자연재난안전) 총 4시간	· 수료평가 · 수료증 교부



자율방재단 등 지자체 위탁교육

(재난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의식 고취 및 기관간 소통을 바탕으로
재난 현장 대응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시행령 제32조의 14~15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협업능력 향상 및 재난현장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대응방안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

교육시간

· 별도 협의

교육비

· 별도 협의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커리큘럼,
교육시간 및 교육비
별도 협의

교육목적

소통을 바탕으로 담당자들의 업무의식 고취 및 자원봉사자들의 협업능력 향상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역량 증진

교육대상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교육내용

구분	재난담당공무원 워크숍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교육대상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등	지역자율방재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
주요내용	· 재난관리 업무수행 능력 향상 교육 · 재난안전관련 현장견학 · 힐링 및 체험교육	· 지역자율방재단 임무와 역할 · 자원봉사의 이해 및 응급처치 실무 · 재난안전체험 및 실습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강절차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 법적근거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0조

교육시간

· 5일, 총 40시간

교육비

· 60만원

교육목적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육성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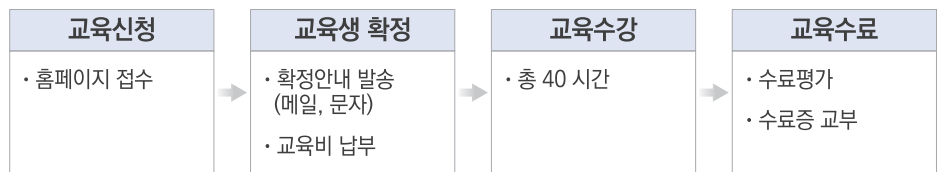
교육대상

재난안전산업 관련 종사자, 종사희망자 등

교육내용

구분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종사희망자 실무교육
교육목표	재난안전산업(기술, 제품, 장비, 시설 등)의 실무 이해를 통한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역량 향상
주요내용	- 재난안전산업진흥법과 제도의 이해 - 재난안전산업의 이해 -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 - 재난안전관련 서비스 개발 4차 산업과 재난안전산업의 융복합 사례

수강절차





Human Life Innovation Engineering

사람을 위해, 사람을 우선 생각하며
사람의 삶을 위한 엔지니어링

사업분야

물 · 도시 · 철도 · 도로교통 · 수자원방재 · 해외개발 · 건설사업관리 등

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2026. 3.1. - 2026. 5. 31.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외국인 포함)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www.safetyreport.go.kr)

※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www.safetyreport.go.kr

• 안전신문고 앱

▶ Play 스토어



App Store에서 다운 받아 신고하세요.